

78만7000명분 아스트라제네카 코로 나 백신 품질검정 완료... 첫 출하 승인

식약처, 20일 만에 신속 마무리... 이달 중 시행될 예방접종 사용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이 보건당국의 마지막 품질 검정 단계인 국가출하승인 절차를 통과했다. 코로나19 백신으로는 첫 국가출하승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지난 1월 29일 신청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 78만 7000여 명분(157만 4000여 회분)을 국가출하승인했다고 밝혔다.

국가출하승인은 백신의 제조단위(로트)별 검정시험과 제조사가 허가받은 대로 제조하고 시험한 결과를 제출한 자료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중에 유통하기 전에 백신의 품질을 국가가 한 번 더 확인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통상 2~3개월이 걸리는 국가출하승인을 20일 만에 신속히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신속한 출하승인을 위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필요한 물량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난 1월 코로나19 백신을 신속 출하승인 대상으로 지정, 다른 국가출하승인에 우선해 처리했다.

이번에 출하승인을 받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은 질병관리청이 이달 중 처음 시행하는 국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사용된다.

이번에 출하승인하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는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모든 공정을 위탁받아 제조한 물량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8월부터 제조원으로부터 상세한 시험방법을 제출받아 검정시험에 필요한 장비와 시약을 준비하고 검정시험법을 마련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의 국가출하승인 신청이 집중될 것에 대비해 검체 보관실을 확충하고 보관 냉동고 등을 추가로 확보했다.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을 위해 157만 4000여 회분에 대한 검정시험과 제조·시험에 관한 자료검토를 통해 품목의 제조단위별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했으며, 그 결과 모두 허가받은 기준에 적합해 국가출하승인을 결정했다.

검정시험에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는 바이러스백터 백신으로서 안전성과 관련해 무균시험, 엔도톡신시험을 실시해 백신의 제조과정 중 세균 등 미생물 오염이 없음을 확인했다.

효과성과 관련해 역가시험, 확인시험, 바이러스백터 함량시험 등을 실시해 효과를 나타내는 단백질 발현 양, 목적하는 유전물질 등의 유지 여부,

유전물질 전달체인 벡터의 양 등을 측정했다.

그밖에 일반적인 백신의 품질시험 항목으로서 성장시험, pH측정시험, 주사제의 실용량시험 등을 실시했다.

백신 원료, 반제품, 완제의약품 관련 상세정보와 제조·품질관리 기록을 검토한 결과,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과 허가받은 사항에 적합했다.

백신 재료로 사용한 세포주와 바이러스주의 계대 이력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 제조공정 단계별 제조·보관 정보와 시험방법, 시험기준 및 그 결과도 확인했다.

계대란 미생물·세포배양을 위해 새로운 용기와 배지에 옮겨 증식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가출하승인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장비 등 관련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국내에 도입되는 코로나19 백신을 철저하게 검정해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 정보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백신·치료제 정보'(www.mfds.go.kr)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최만식기자



이재명, "경기연구원 등 7개 공공기관 경 기북동부로 이전 추진"

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계획 발표



경기도가 경기 북·동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7개 기관의 이전을 추진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경기북·동부 지역의 발전이 더딘 이유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해 군사안보나 수자원 관리 등 중점규제로 인해 오랜 기간 지역 발전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사람이든 지역이든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하고 있다면 이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공정의 가치에 부합하고 이것이 균형발전을 위한 길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두 차례에 걸친 공공기관 이전 결정 역시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다"며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규모가 더 큰 기관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가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경기도는 2019년 12월 고양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2025년까지 경기관광공사와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등 3곳의 공공기관을 '고양관광문화단지'에 이전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에는 경기교통공사와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 5개 공공기관의 주사무소를 시·군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양주시와 동두천시, 양평군, 김포시, 여주시로 각각 이전 중이다.

세 번째로 이전이 추진될 7개 기관은 도민의 요구와 기관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7개 기관의 근무자수는 총 1,100여명으로 지난 1·2차 이전 기관의

근무자수를 전부 합친 규모와 비슷하다.

이전 대상지역은 경기 북·동부의 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역 가운데 중북 지역을 제외한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이번 달부터 공모계획을 수립해 기관별 공모를 추진하고 4월에 심사를 거쳐서 5월경에 이전 선정 대상 시·군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균형발전과 사회 연관성, 접근성과 도정협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전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시군 간 과열 경쟁 방지와 재정 규모 차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시·군의 재정부담 부담은 심사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한 일정한 규제가 불가피 하더라도 전체를 위해 특정 지역이 일반적으로 희생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세심하게 살피고 각별히 배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정 주요현안 및 미래산업 혁신 연구 등을 담당하는 경기연구원, 여성·가족 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담당하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각종 복지정책 개발과 사회복지 시설 서비스 품질 강화 등을 담당하는 경기복지재단은 수원시 인재개발원 건물에 자리잡고 있다.

농어촌 활성화와 농수산물 유통사업을 추진하는 경기농수산진흥원은 수원시 권선구 경기종합농동북지회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내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등을 관리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에 있다.

기업성장 지원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4차 산업기술 진흥을 지원하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소상공인 신용보증 및 채권관리 등을 담당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수원시 광교 테크노밸리내 위치하고 있다.

최정근기자

[칼럼] 아직도 늦지 않았다,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정부가 발표한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 이후 15일부터 적용되는 영업시간 10시 이후 영업제한이 저녁 늦은 시간 영업을 하는 유흥시설 특성 상 무용지물이 되자 관련 업계의 업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대로 간다면 업종에 따른 시간대 적용을 탄력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 결국 너도 나도 각자의 입장을 고수할 때 정부 방침은 중심을 잃게 된다. 강행하자는 입장이 맞고 풀어달라고 아우성 일테데 어찌하겠는가.

내부적으로 폭풍 놀러 왔던 인내가 터진 것이지 새삼스럽게 웬일이 아니었다. 지난 토요일 경남 거창지역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유흥업소 업주의 안타까운 죽음이 외부로 알려지자 공감대를 형성한 한국 유흥업종 중앙회 경남지회·지부가 오늘부터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경남도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경찰은 거창지역 내 유흥주점 지회장을 맡은 A씨가 코로나19 사태로 오랫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자 자판기에 빠진 후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집회자체가 거리두기 위반인데 인내의 한계선이 방어의 경계선을 넘는 셈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의 목숨처럼 귀한 게 어디 있을까. 벼랑 끝에 몰려보지 않은 사람은 몰려난 사람의 마음을 절대 이해할 수 없다.

문제는 모든 업종의 파국이 예상보다 크고 빠르게 오고 있다는 점인데 통계청 조사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국내 자영업자 수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이 줄었다. 2020년 자영업자수는 1994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이러한 숫자는 사업자등록에 올라온 수치지 실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수는 아니라는 게 문제다. 거창 유흥주점 업주의 경우 외부로 알려진 것이지만 단전되어 어두운 방안에 조용히 생을 마감하는 2020년 통계는 올해 10월 경에야 발표된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영순 교수팀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조사 결과 코로나19이후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업종은 79.4%로 자영업이 가장 높았고 이어 무직 퇴직 기타 주부 순이라고 한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필자가 흔히 쓰는 비유 중에 쥐도 물리면 고양이도 문다는 말을 한 바 있다. 요즘 같은 시국에 무마되지 않을 자 어디 있을까. 힘들지만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것이고 참다보면 언젠가 좋은 날 오겠지 하며 기다리는 것인데 집단행동이 시작된다면 너도나도 인내의 바닥을 드러낼 것이다.

정부가 발표하는 내용이나 언론이 공통적으로 보도하는 코로나19의 흐름을 보면 확진자도 평균 수 백 명을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상황 바뀌며 평균치를 유지하는 것인지 검사인원 대비 고정적으로 확진자가 나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국내 사정은 소정의 수준을 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어느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들은 백신을 눈 빠지게 기다리고 금방이라도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안심 하리던 정부 관계자의 말은 이제나 저제나 하염없다.

필자가 여러 분야 언론사를 운영하면서 체감하는 것 중 하나가 시황과 안산의 생활정보신문인데 민초들의 심땀줄 같은 현실을 읽을 수 있는 지역신문이다. 이미 온라인에서 관련 사이트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쏟아지는 물품의 팔고 사는 관계는 별별 사연이 있다.

한 예를 들어 7000원 주고 구입한 커피머신은 사용하지 1년도 되지 않았지만 100만원도 사는 사람이 없다. 코로나초기에만 해도 절반만 받았던 가격이 매물이 넘치면서 현금만 잡다보니 중고업체마다 더 이상 팔 곳도 없고 아무리 싸게 사라도 살 사람이 없으니 한계점에 다다른 것이다.

의류, 구두, 식당 집기, 전자제품 등 매출은 종류를 가리지 않고 넘친다. 싼값에 살 수 있는 기쁨이 누군가의 슬픔이다. 물건의 가치가 저평가 되면서 사람의 가치까지 동원당하 되는 것일까. 저가라도 팔리면 다행이다.

혹여 안 팔릴까 눈치 보며 이리저리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다녀야 하는 모습을 보며 산지욕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든다. 어렵사리 개업해서 준비한 시설물들은 돈이 남아돌아 구입한 것이 아닐 수 밖에 없다.

돈 많은 사람이라면 굳이 돈 벌러 애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모두 없는 사람들이던 살아보려고 준비한 물건들을 헐값에 처분하고 공짜나 다름없이 판매한 돈은 산업에 거미줄을 수 없는 최후의 보루다.

얼마 전 눈물을 흘리며 결혼반지를 판 어느 신혼부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이 안타까움을 남겼다. 팔다 팔게 없으면 자 존심마저 팔게 되는 게 산사람의 처지다. 거라마다 점포대표사는 한집 건너 한집인데도 정책의 입안자들은 침을 튀기며 얼마 남지 않은 선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서울을 다 뒤집어놓을 만큼 멋진 구상들이 쏟아져 나오고 침체되었던 부산도 시장 후보들의 프로젝트로 하루아침에 새로운 세계가 열릴 듯하다. 그렇다면 그동안은 왜 안했을까. 그리 갈할 수 있는 일들을 못한 걸까 안 할 걸까.

후보들의 토론을 듣다보면 저만한 소음공해가 또 있겠구나.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필자가 극단적 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생명존중강사를 겸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의 심경은 정부의 예상치를 훨씬 넘고 있다. 극단적 선택은 그리 극단적이지 않아도 실행될 소지가 점점 넘치고 있다.

코로나19의 예상으로 문 닫는 식당의 냉장고라도 제값이 구입해야 한다. 동네마다 수 십 개씩 설치하여 남은 음식물을 무료로 넣어두고 필요한 사람은 산 사람이기도 살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잠정장기라도 막아야 한다.

덕암/김국석

ZOOM

들여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숲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 조지훈과 주시경의 사랑을

길 천혜의 자연경관, 아름다운 자연경관, 아름다운 자연경관

빛 푸른 하늘과 푸른 산, 푸른 하늘과 푸른 산, 푸른 하늘과 푸른 산

맛 사색의 여정, 사색의 여정, 사색의 여정

심 자연과 함께하는 여행, 자연과 함께하는 여행, 자연과 함께하는 여행

영양군 YEONGYANG-GUN

영양군을 다가가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경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ida YEONGYANG NATIONAL PARK citiuslow

영양의 자연: 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분신계곡, 참깨공원, 죽백수원, 외씨바선길
영양의 역사: 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물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양국제반하늘보조공원, 반달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연생태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원산자연휴양림, 영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아트센터전시관

김명원 도의원, “범박옥길 ~ 강남 노선 광역버스 신설” 촉구

17일 제350회 임시회 상임위 교통국 주요업무보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은 2월 17일 제350회 임시회 2021년 교통국 주요업무보고에서 범박 옥길에서 강남으로 가는 광역버스 노선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명원 위원장은 지난 3일 건설교통위원회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 50% 증액 및 법제화 건의문 전달을 위한 국회 방문을 언급하며 “중앙부처 어디에 공문을 보냈는지 그리고 광역버스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지, 부천의 범박 옥길에서 강남으로 가는 노선 신설을 많은 주민들이 요구하

고 있으니 반드시 성사되어야 할 것”이라며 교통국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박태환 교통국장은 “중앙부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공문을 보냈으며 광역버스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니 부천시를 통해서 신설안을 경기도로 올려주면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김위원장은 “다음달 4일 경기도 출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정책감담회가 있으니 국비 50% 상향 법제화를 잘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정근기자



김직란 도의원, ‘경기버스 승차벨 서비스’ 시작전 현장실태 파악·반영 요구

승차벨로 인한 배차시간 증가, 업무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당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은 2월17일 경기도 교통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경기버스 승차벨 운영 및 버스업체의 재정 현황 조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적극 질의했다.

이날 김 의원은 시내버스 무정차 운행 근절 및 버스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현재 시범사업 중인 ‘경기버스 승차벨 서비스’를 설명하며 “버스정류소의 승객 대기정보를 운전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은 매우 좋은 정책인 것은 맞지만, 정차벨로 인해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 교통국 차원에서 사전에 조사를 실시했고 실제 버스운수종사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였는지”를 질의하며 3월1일부터 실시될 승차벨 서비스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박태환 교통국장은 “현재 2차 시범사업을 시행중이며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발생하지않고 있다”며 “도민 및 운수업체에서도 시범사업 중인 승차벨 서비스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일부 현장에서는 승차벨 서비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몇몇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앞서 현

장의 의견을 철저히 조사해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버스인프라 확충 및 시설개선사업과 주차환경개선 추진시 주차장 설치비 최대한도 10억원으로 제한되어있던 것을 30%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으나, 일부 현장에서는 10억원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정된 조례안이 도민들의 삶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박 국장은 “도민들이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최근 사모펀드 관련해 “최근 사모펀드가 관여된 버스업체에서 전기버스도입, 충전시설 설치 등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고 있는데, 버스업체의 자부담을 펀드로 조성하고 이자 등 경비를 운수업체 수입에서 지출하는 구조가 된다면, 결국 운수종사자 몫, 복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버스업체 재정현황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에 박 국장은 “현재 사모펀드가 도민 및 버스업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논의할 자리를 준비 등 해당 부분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다”고 답했다.

최정근기자

김춘례 시의원, 북악산 이동식 화장실 설치현장 방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중 주민편의시설 점검·개선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서울시의회 김춘례 의원은 지난 14일 설연휴 중 주민편의시설 점검차원에서 성북구 북악산로 인근 이동식 화장실이 설치된 현장을 찾았다.

현장은 성북동 산 25-59 일대 성북과 종로를 잇는 길로 북악스카이웨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그동안 많은 시민들이 드라이브 또는 트레킹 코스로 이용해 오던 경로 가운데 있다.

산책을 위해 현장 주변을 자주 찾는 시민들은 기존에 설치돼 있던 간이화장실이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민원을 제기해 왔고 김춘례 의원은 빠른 시정을 위해 2021년도 ‘서울시 시공원 보수정비 사업’ 중 ‘북악산 환경정비’에 편성된 예산 9억원 중 1억원을 화장실 교체 사업에 조기 집행하도록 도왔다.

이미 설치된 지 10여 년이 지난 화장실은 수도공급과 하수처리가 어려워 관리가 힘들었고 방치된 채

오랜 시간이 지나 악취가 심해 주변 경관만 훼손할 뿐 실제 이용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따라서 현장 특성을 감안해 수도·정화조 설치가 필요 없는 무급수·무방류 순환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함으로써 기존 간이화장실이 가지고 있던 악취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적 요소 또한 갖추게 됐다.

김 의원은 현장 방문 후, “많은 시민들이 찾는 산책길에 흉물처럼 남아있던 화장실을 새롭게 교체하도록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간 시행으로 발견음이 뜸해져 섬세하지만, 오히려 지금이 주민편의시설을 점검하기에는 적기라고 생각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곳을 지속적으로 찾아 코로나19 이후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개선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최광수기자



강원도의회, ‘영월~삼척 간 고속도로 조기개통 촉구’ 성명서 발표

강원도의회 영월~삼척 고속도로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월 17일 발표한 성명문에서 영월~삼척 간 고속도로 구간의 제2차 고속도로 5개년 건설계획 중점추진사업 선정과 해당구간의 조기착공을 정부에 촉구했다.

강원 남부권 지역은 1980년대 시행한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 석탄 산업을 대체할 산업의 부재로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비롯해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더욱이, 코로나 장기화의 여파가 더해져 청·장년층의 인구유출과 출생아 수의 감소로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했다.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폐광기금을 활용한 대체산업 육성 및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지 개

발 등 지역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역의 낙후도는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강원도의회는 서해안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국가 기간 교통망 확충이 강원도가 북방경제시대 물류 거점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필수 선결과제를 밝히고 강원 남부권의 열악한 교통망 개선을 주장했다.

성명문에서 “경제성만을 논하기 보다는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를 기초로 소멸위기에 직면한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가 절실하다”며 국토의 균형발전과 강원 남부권 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해 제2차~삼척 121km 전 구간의 동시착공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만식기자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자치경찰제 시행 앞두고 서울지방경찰청장 면담

“현장의 목소리와 자치분권 취지 모두 담은 조례안 마련”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2월 17일 오후 3시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과 면담을 갖고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관련 조례안 제정,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논의했다.

자치경찰제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난해 12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7월 전면 시행된다.

이에 각 시·도에서는 자치경찰 사무 범위 등 관련 조례 마련,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설치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의회는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2명 추천 위원 추천 관련 시의회 조례·내부 규칙 제정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상임위 지정 자치경찰 사무 범위 명시한 관련 조례 심의 등의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김인호 의장은 오늘 면담 자리에서 “자치분권 2.0시대의 개막은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안착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경찰청에서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배포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청장님과 면담을 나눈 만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오는 4월까지 현장의 목소리와 자치분권의 취지를 모두 충분히 담은 조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회는 자치경찰제가 생활안전 및 교통, 경비 등 시민과 밀접한 분야로 규정된 만큼, 제도 시행과정에서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생활의 질적 향상에 조속히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안착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는 이 달 안에 자치경찰제 운영 TF를 구성하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과 상임위원회 지정, 자치경찰 사무조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최광수기자

김병욱 의원,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 선거 논란 관련 금융위·금감원에 적극적인 조사 및 조치 약속받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17일 진행된 정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 셀프 추천 논란에 대해 금융위원장에 질의했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약속받았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 21년 1월 27일 이사회를 열어 현임 임승보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회장 자신이 자신을 추천하는 표결에 참가해 표결을 행사하는 문제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17일 오후에 진행된 국회정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승수 금융위원장에 대해 “대부업법 제 18조의 9에 근거해 금융위원회가 한국대부금융협회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대부금융협회로 대부업법상 공식 협회로 등록되어있음 정관에 관한 허가권과 협회 임직원에 대한 처분과 조치권을 갖고 있다고 강조한 후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적극적인 조사 및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임승수 위원장은 금감원에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어 금감원과 잘 협의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고 윤석현 금감원장은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한다”며 “현재 접수를 받아 자료제출 요구를 했고 검토 중이며 면밀히 검토해서 금융위와 협의해서 조치하겠다”며 적극적인 조사 및 조치를 약속했다.

정동희기자

www.wawa105sujin.com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우편번호 :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14222 광명시 시청로7 동신에이스텔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 부회장 박유석 / 사장 임성경 / 편집국장:최재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최수진

대표전화:1899-9659 e-mail:ekwk44@naver.com suj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 차 부:내선 (112) 문화부: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서울 가50146 사 회 부:내선 (113) 부동산부: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 제 부:내선 (114) 오피니언부:내선 (118)
대표전화: 1899-9659 스포츠부:내선 (115) 지 방 부:내선 (119)
편집국 : 02)2612-2959 팩 스 : 02)2060-4147 구독신청,배달안내 : 1899-9659 구독료 : 월 15,000 1부 800원

사용이 편리한



「나주사랑카드」 상품권 출시

- ▶ 발행시기 : '20.9.1.부터
- ▶ 카드신청 - 한국조폐공사 앱(chak)
- ▶ 충전한도 : 월 70만원
- ▶ 좋은점 - 사용자에게 10% 할인
-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 ▶ 발행종류 : 충전식카드
- 관내 농협 방문
- ▶ 사용처 :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
- 직장인 소득공제 30%
- ▶ ※ 스마트폰, 신분증, 계좌번호
- 휴대폰에서 충전가능 등
- ☎ 339-8822

용인시 4개 특례시 시장, 국회의원, 시의회장 공동대응 박차

17일간담회 열고 중앙정부 차원의 특례 추진 전담기구 설치 촉구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4개 특례시의 시장,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공동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특례권한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특례 추진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7일 백군기 용인시장, 이재준 고

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과 정찬민·김민기·이탄희 의원 등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김기춘 의장 등 시의회 의장들은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시장,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단이 함께 모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례시 추진상황과 계획을 공유하고 특례권한 발굴과 확보를 위한 법령 제·개정,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구성 및 사무처 운영 방안 등 다양한 사안들을 논의했다.

특히 중앙정부 차원의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중앙부처가 가진 여러 가지 사무와 권한을 이양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 간의 의견 조정이 필수인 만큼, 이를 조율할 수 있는 중앙정부 내 전담기구나 청와대 내 담당 비서관 등이 신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특례시에 걸맞는 권한과 제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며 "시민들이 준광역시급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권한 확보는 물론 재정, 법률 등 제도 마련을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윤/기자

"공공기관 성과창출 위해 도전적 목표 설정해야"

이용섭 시장, 공공기관장회의 주제...지나해 결과·올 계획 공유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7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도시공사 등 25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공공기관장 회의의 주재하고 2020년 공공기관 성과창출 평가 결과와 2021년 계획을 공유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성과창출 목표에 대한 시의 실적 평가 결과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주신용보증재단 등 11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도시철도공사는 국가핵심기반재난관리평가 및 철도안전관리 수준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광주신용보증재단은 ISO37001 취득과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노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IoT센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재난안전 시스템 구축 광주아이키움 플랫폼 AI기반 큐레이션 서비스 도입 기후환경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서비스 증대 등 올해 추진할 '1기반 1AI 서비스'와 관련한 도전적인 목표들이 발표돼 관심을 끌었다.

이날 이용섭 시장은 "코로나19가 1년 이상 계속되면서 지역경제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어느때보다 필요한 때이다"며 "상반기 재정 신속 집행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각 기관별로 특색있는



'골목상권·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착한 소비운동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이어 "인공지능 중심으로 일상이 사회·경제시스템이 완전히 바뀌는 대전환의 시대에 맞춰, 기존의 업무영역과 방식을 파괴하고 파격적인 사업영역을 개척하는 등 혁신적인 경영관리가 요구된다"며 "공공기관의 성과창출을 위해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관별로 발표한 AI정책은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인공지능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도시답게 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광주발전, 시민편의성 제고 업무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광주형 그린뉴딜 목표인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을 위해 각 기관의 자체 이행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시는 공공기관장회의 후 전체 공공기관의 성과창출 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실행결과에 대해 내년 1월 종합평가한 후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택윤/기자

안산시, 3차 생활안정지원금 이달 23일부터 지급

문화읍 시장 "빠짐없이 지원하도록 철저히 추진"

안산시가 집합금지·영업금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한 14억 규모의 '3차 안산형 생활안정지원금'을 이달 23일부터 지급한다.

시는 3차 생활안정지원금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연계해 신속지급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우선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0일 사이에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 별도의 접수 절차 없이 이달 23~28일 순차적으로 은행 계좌로 지급한다.

이어 이달 11~26일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3월 중 모두 지급할 방침이다.

1·2차 지급에서 누락됐거나, 지원 조건을 갖춰도 지급 받지 못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 등에게는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쳐 3월 내로 모두 지급할 방침이다.

이번 3차 안산형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은 학원·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교습소 등 집합금지업종 3천800개소 식당·카페·미용원·PC방·숙박시설·스터디카페 등 영업제한 업종 1만2천개소 등이다.



아울러 법인택시 종사자 790명 개인택시 종사자 2천90명에게는 이달 23~28일 안산화폐 '다운'으로 지급한다.

문화읍 시장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영업피해를 입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빠짐없이 지원하도록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도 1인에게 한 번만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안산시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3차 안산형 생활안정지원금 지급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문화읍 시장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영업피해를 입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빠짐없이 지원하도록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정무/기자

허성무 창원시장 '탈플라스틱 고고챌린지' 동참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운동 범국민 릴레이 캠페인 참여

허성무 창원시장은 17일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 '고고챌린지'에 동참했다.

'고고챌린지'는 환경부가 탈플라스틱 운동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참여 확산을 위해 실시한 SNS 릴레이 캠페인으로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가지를 거부하고 해야 할 가지를 실천하고'에서 따온 말이다.

조명래 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작된 이 릴레이는 박일호 밀양시장의 지목을 받아 참여하게 됐다.

촬영한 영상은 페이스북·카카오토티스토리 등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회용품 사용 안 하고 텀블러·다회용컵 사용하고'로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을 약속했다.

허 시장은 "넘쳐나는 플라스틱이



결국 생태계 및 우리의 건강까지 위협하게 된 지금 사람의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꾸고 지구환경을 살리는 길임을 알고 나부터 실천할 것"이라며 "탈플라스틱 고고챌린지 뜻 깊은 캠페인이 널리 확산되기를 바

라며 국민 모두가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변광용 거제시장,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을 지명했다.

남영경/기자

정하영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조치 적극 환영"

정하영 김포시장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북부권, 접경지역 이전 조치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 시장은 17일 성명에서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연구원 등 공공기관의 경기 북·동부, 접경지역 이전을 결정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단호하고 실질적인 조치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7개 기관 북·동부 지역 추가 이전 결정으로 경기 북부권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70여 년간의 시름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 시장은 "경기 북부권과 접경지역 시·군들은 안보를 이유로 또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삼중사중의 중첩규제에 시달리고 있다"며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사람과 돈, 일자리와 기업이 집중되고 있는 남부권에 비해 발전의 단초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경기 북부권과 접경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정 시장은 "전체를 위해 특정 지역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일



이 없도록 앞으로도 세심하게 살피고 각별히 배려하겠다"고 강조한 이재명 지사의 균형발전 의지를 높이 샀다.

정 시장은 "경기 북부권과 접경지역의 시·군들은 통일 한반도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매우 역사적인 위치에 있다"며 "경기도의 이번 조치처럼 적극적으로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더욱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는 같은 날 오전 경

기 북·동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7개 기관의 이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이전이 추진되는 7개 기관의 근무자수는 총 1,100여명으로 지난 1차, 2차 이전 기관의 근무자수를 전부 합친 규모와 비슷하다.

김영근/기자

염태영 시장,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경기 남부권 도민 행정서비스 접근권 위한 대안도 마련해야"

염태영 수원시장은 경기도의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에 대해 "경기 남부권 도민의 행정서비스 접근권을 위한 대안도 함께 마련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염태영 시장은 17일 개인 SNS에 글을 게시하고 "경기도 공공기관의 경기 북부 이전으로 경기 남부권 도민의 행정서비스 접근권이 제한 받지 않길 바란다"며 "남부권 도민의 행정서비스 접근권을 위한 대안 마련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7일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수원시에 있는 7개 공공기관을 경기도 북·동부 지역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염태영 시장은 "균형발전 관점에서 경기도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한다는 취지는 이해한다"며 "다만 구체적인 추진방법은 수원시, 경기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기 북·동부는 이중



삼중의 규제에 고통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합리적인 규제완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

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정근/기자

서울시, 한강공원 가꾸고 지킴 자원봉사자 모집 '우리 함께해요'

2021년 한강공원 자원봉사 참여할 개인 및 단체 모집 ~3.15)

안전하고 즐거운 한강공원을 직접 만들어갈 자원봉사자 모집이 시작됐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올해 전체 11개 한강공원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할 개인 및 단체 자원봉사자를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4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강공원 자원봉사자는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한강공원 환경정화, 안전캠페인 진행, 시민체력 프로그램 운영 등 한강공원 관리와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올해는 한강공원 관리와 이용문화 확산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개인 자원봉사자' 160명과 공원 환경정화 및 직접 기획한 활동을 운영하는 '자원봉사 단체' 60팀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인'의 경우 한강공원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단체의 활동을 현장에서 인솔하는 한강도움이 60명과, 보행자와 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한 한강공원 이용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는 안전문화캠페인봉사단 100명을 모집한다.

특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공원 내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에 따라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는 활동이 확대됐다.

'단체' 분야는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및 환경정화에 참여하는 학교·기업 등 한강지킴이 30팀과, 환경·문화·예술 등 주제에 따라 직접 기획한 봉사활동을 운영하는 기획봉사단 30팀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인자원봉사자'는 서울에 거주하거나 활동지를 둔 20세 이상의

시민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 단체'는 서울 소재 초·중·고등학교, 기업, 시민단체 등으로 희망하는 활동분야에 따라 5인 이상 신청을 받는다.

신청을 원한다면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누리집에서 분야별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3월 15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 한강사업본부 시민활동지원과 선발여부 모집마감 후 개별 통보 할 예정이며 선발된 개인 및 단체는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기 전 진행될 온라인 교육 및 설명회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교육 및 설명회는 3월 27일 4월 2일 4월 3일에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주제와 활동분야에 따라 평일과 주말 중 가능한 시간을 선택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부 진행시간 등은 선발된 개인 및 단체에 한해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자원봉사에 참여할 경우, 요청 시 1365 자원봉사포털을 통해 봉사활동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2년 이상 지속적인 활동 시 총 활동시간 200시간 이상인 개인과 단체는 서울시장 표창을 받을 기회도 주어진다.

송영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총무부장은 "올해는 특히 보행안전 등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한강공원 이용문화를 확산하고 벽화를 통해 미관을 개선하는 부분에서 자원봉사자들의 활발한 활동이 기대된다"며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한강관리를 위해 열정을 가진 자원봉사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2021년 한강공원 자원봉사자 모집

모집기간 2021년 2월 16일(화) - 3월 15일(월)

모집대상 한강공원 봉사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할 개인 및 단체

① 개인 : 20세 이상 서울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활동지를 두고 있는 일반시민, 대학생, 직장인 등
② 단체 : 서울 소재 초·중·고등학교, 기업, 시민단체, 동아리 등 함께 활동할 5인 이상 단체

모집분야 한강도움이(60명), 안전문화캠페인봉사단(100명), 한강지킴이(30팀), 기획봉사(환경 15팀, 문화 10팀, 예술 5팀)

신청방법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신청서 작성 후 전자우편 접수(hangangvt@seoul.go.kr)

분야별 활동시제

한강도움이(개인)	안전문화캠페인봉사단(개인)	한강지킴이(단체)	기획봉사(단체)
단체봉사활동 인솔, 프로그램 기획, 운영 등	안전한 한강공원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추진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환경정화 등	한강 유역기원지정, 벽화 등 환경 문화, 안전교육, 소외계층 나눔기 등 운영 계획 등 공공서비스 운영

은평구, 향림도시농업체험원 내 텃밭 참여자 모집

한 가족당 1구획, 텃밭 이용료는 구획 당 3만원, 5인 이상 단체도 참여 가능

은평구는 지역 주민 누구나 도시농부가 되어 텃밭을 가꿀 수 있도록 '향림도시농업체험원 내 텃밭 분양'을 실시, 3월 2일부터 3월 8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분양하는 텃밭은 총 210 구획이며 분양신청은 1가구·1공동체 당 1구획을 기본으로 신청 가능하다.

텃밭 경작 기간은 3월 22일~11월 30일이며 텃밭 이용료는 구획 당 3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하다.

텃밭은 서울에 주소가 등록된 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한 일반텃밭, 구에 등록된 5인 이상 단체만 신청 가능한 공동체텃밭, 구에 등록된 다문화가정·다자녀가정·장애인·불광2동 주민 등이 신청할 수 있는 배려텃밭으로 총 3가지이다.

향림도시농업체험원은 3월 20일~3월 21일 텃밭 분양자 오리엔테

이션을 통해 이용방법 및 작물재배 요령 등도 설명할 계획이며 작물 재배 시 도시농업전문가가 개별 배치된 푸른마을, 초록마을 등 6개의 텃밭 공동체를 구성해 초보 도시농부들이 텃밭을 가꾸는데 멘토로서 활동할 예정이다.

분양자 선정과 결과발표는 3월 9일 컴퓨터 전산 추첨을 통해 진행하며 결과는 3월 10일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향림도시농업체험원 내 텃밭은 지역 주민에게 인기 있는 장소이고 도심 속의 텃밭이 참여자들에게 농사 체험의 기회 제공 및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텃밭 마을공동체를 통해 더욱더 활기차고 즐거운 도시농업체험원이 되도록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조성순/기자



인천시, 물 관리에 첨단 기술 도입

"정수장부터 수도꼭지까지 스마트하게~"

인천광역시시는 수도물 공급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통합운영체계를 구축, 사고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을 연 내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은 수도시설 전반에 대한 문제를 개선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도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첨단기술을 도입해 정수장에서 수도꼭지까지 수질·수량 관리를 실시간 감시하고 자동 제어하는 통합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국비 238억원 등 총 476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지난 해 10월 환경부 기본계획이 확정됐으며 금년 4월까지 실시계획 등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일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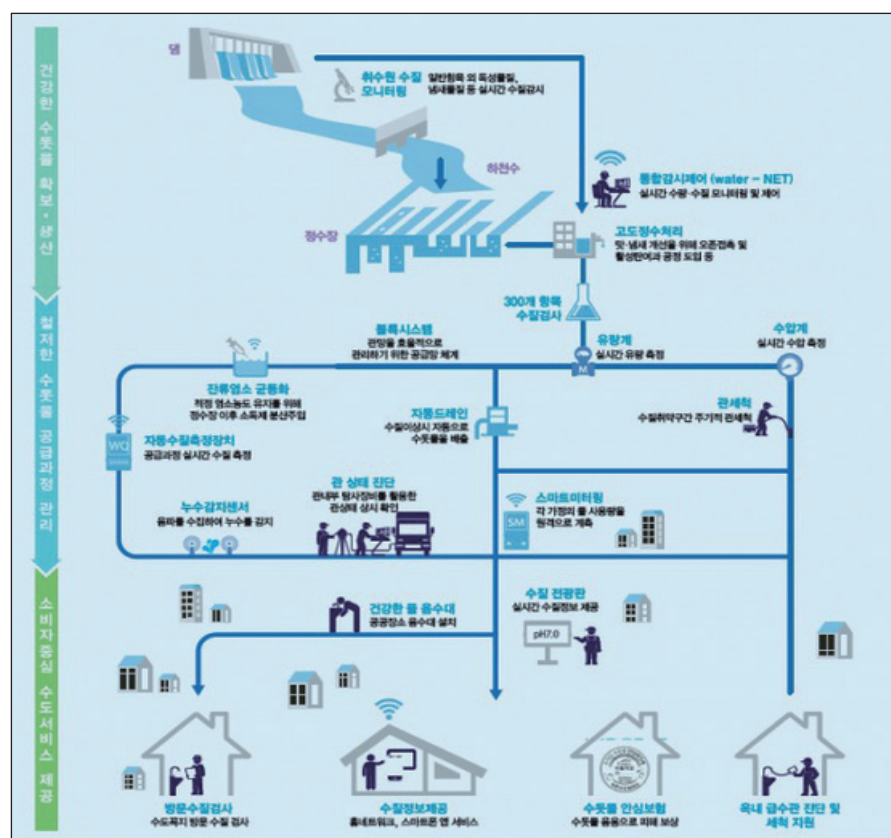
주요 사업은 실시간 수질 감시 및 관리를 위한 재연소 설비, 정밀 여과장치, 수질 측정 장치 구축 수질요역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한 자동드레인 설비, 관 세척 작업 각종 수질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소규모 유량계, 스마트 미터링계, 스마트 수압계 구축 수도물 신뢰 제고를 위한 '인전형 워터케어' 서비스 등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상수도사업본부는 관로에 다양한 수질 측정 센서 설치해 실시간 수도물 수질감시 체계를 완벽히 확립한다.

이를 통해 수질 이상 발생 시 민원 발생 전에 인지해 선제조치를 취할 수 있고 자동으로 작동하는 자동드레인 설비 등을 통해 탁수가 발생되더라도 자동으로 관리가 가능해진다.

또 시민들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우리 동네 수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상수 관 세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해 수도관 내부의 물때나 침전물, 붉은 녹 등으로 인한 수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게 되



어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깨끗한 수도물을 공급받게 된다.

이러한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위험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사회안전망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수도물에 대한 시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수질관리 전문 인력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수질검사 및 옥내배관 진단, 세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전형 워터케어 사업을 2월 중 본격 시행한다.

조인권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인프라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상수도관의 스마트한 유지·관리가 가능해져 적수 등 수질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고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및 사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언제나 안심하고 편리하게 수도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과 제도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남/기자

강동구, 품격 있는 문화예술 도시의 메카로 부상

강동구, 문화예술 총괄기획가 위촉

강동구가 품격있는 문화예술 도시의 메카로 부상하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문화예술 총괄기획가를 위촉해 민간전문가 자문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화예술 총괄기획가는 강동구만의 지역 문화예술 자원을 발굴·특화하고 강동형 문화예술 브랜드를 만들어, 강동구를 문화예술 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총괄·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추진했던 각종 주요 행사나 축제, 문화예술 사업들을 문화예술 총괄기획가는 민간전문가로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문화예술 정책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구는 2월 15일 임기 1년의 문화예술 총괄기획가로 권재현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교수를 위촉했다.

권재현 교수는 중앙대학교 문화연구학과 박사 학위를 받았고 학계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 공연의 총감독 및 총연출로서 10여 년 이상 현장 경험도 풍부하다.

강동구는 지난해 1월 강동문화재단을 출범시키고 지역 문화예술계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했으나 지난해 2월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로 문화예술계는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구는 지역 예술인 긴급성

활비를 총 7,300만원 지원하고 강동선사문화축제 비대면 온라인 최초 시도, 강동 빛의 다리 축제, 야외 조각전, 버스킹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해 코로나19로 침체된 문화예술계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데 노력했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문화예술 총괄기획가 자문제도 운영으로 향후 인구 55만을 바라보는 변화하는 강동구의 문화예술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품격 있는 문화예술 도시로서 새로운 강동형 문화 도시 모델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규식/기자

영등포구 '친절한 마을 상담소'로 오세요

3월 2일부터 8일까지 마을공동체 사업 공모... 최대 500만원 지원

영등포구가 지난 15일부터 '친절한 마을 상담소' 문을 열었다.

마을공동체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도심 속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해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주민이 스스로 제안하고 실행하는 사업이다.

구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두고 있는 3인 이상의 주민모임 또는 단체라면 누구나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공동체 모임 활성화 코로나-19 의제 해결형 총 2개다.

이웃 간 관계 형성에 중점을 둔 사업인 경우 공동체 모임 활성화 분야를, 코로나-19 상황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코로나-19 의제 해결형 분야를 지원하면 된다.

사업 신청 기간은 3월 2일부터 3월 8일 오후 6시까지다.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규모는 총 8400만원이며 선정된 사업에는 모임별로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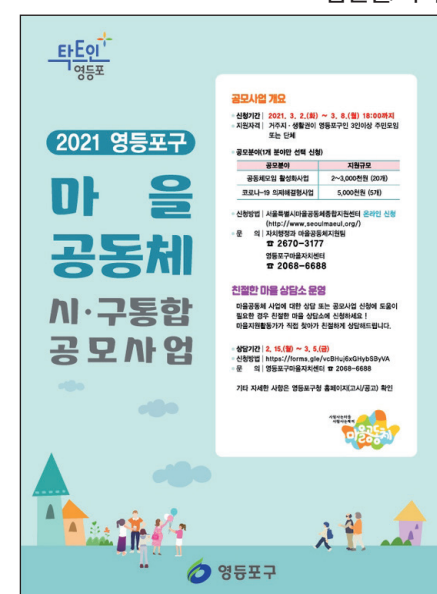
이와 함께 구는 이달 15일부터 3월 5일까지 찾아가는 컨설팅 프로그램인 '친절한 마을 상담소'를 운영하며 주민들의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 지원에 나선다.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사업 신청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웹 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마을지원활동가가 직접 찾아가 상담해 준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마을 내 관심거리, 이야기거리, 고민거리 등을 찾고 해결해보는 경험을 통해 진정한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가는 일에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김현일/기자



2021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시·구통합 공모사업

신청기간: 2021. 3. 2(월) ~ 3. 8(월) 오후 6시까지

신청대상: 영등포구 주민모임 또는 단체 (3인 이상)

지원규모: 총 8,400만원 (모임별 최소 200만원, 최대 500만원)

신청처: 영등포구 주민지원센터 (영등포구 신길1로 100)

문의: 02-2670-3177

관악구,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액 21억 9000만원 달성

기업체 및 각종 주민단체, 종교단체, 개인기부자 등 후원의 손길 이어져...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관악구민들의 온정의 손길은 변함없이 따뜻했다. 관악구가 '2021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서 목표액인 17억 원을 훌쩍 넘는 21억 9,000만 원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한 '2021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서 구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낸 결과 성금 9억 5,000만원, 성품 12억 4,000만 원을 모금,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타 지자체에 비해 고액기부자 및 기업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주)랜드, 서광산업, (주)영은전력, (주)세인트게더, (주)네오환경, 관악농협, 관악새마을금고 등 많은 기업체에서 변함없이 성금을 기부했다.

각종 주민단체, 종교단체, 업종모임 및 개인기부자들의 후원의 손

길도 이어졌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로 인해 올해 모금액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에 내미는 손길은 변함없이 따뜻했다.

지역 마트를 비롯해 작은 꽃집, 자식들로부터 받은 용돈을 모아온 신 노부부, 이웃을 위해 직접 생필품 꾸러미를 준비한 교인들, 환자들의 기부금을 모아온 의원, 이름을 밝히지 않고 성금·성품을 놓고 간 주민 등 따뜻한 마음을 전한 사연도 다양했다.

또한 관악구 공무원들도 어려운 이웃에 힘을 보태고자 지난 1년간 매월 급여의 일부를 모은 모금액 9,900만 원을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해 나눔 활동에 동참했다.

이번 모금활동에는 총 1만 2,805건의 후원금품이 전달돼 저소득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 2만 6,500여 명을 지원했다.

성품은 홀몸어르신,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에 전달됐고 성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난방비 등으로 연중 지원될 예정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나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주민들의 마음에 큰 희망과 감동을 받았으며 이번 목표액 달성은 한마음 한뜻으로 온정의 손길을 모아주신 구민 여러분들이 이뤄낸 성과"며 "나눔 목표액 달성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용산구,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추진

착한임대인에게 용산사랑상품권 최대 100만원 지급

서울 용산구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임차인을 위해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임차인과 상생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임대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더 많은 임대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임대료 인하 금액에 따라 용산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100만~500만원 미만은 30만원, 500만~1000만원 미만은 50만원, 1000만원 이상은 100만원을 지원한다.

임대인이 다수 건물 소유 시에는 인하 금액을 합산해 구간을 적용한다.

지원 대상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점포이며 1월부

터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올해 안에 인하 계획이 있는 임대인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이는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구청 5층 일자리경제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다음달 31일까지 접수를 받고 4월 중 용산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세제 지원 건물 무상 전기안전점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대상 혜택을 6월 말까지 연장·지원한다.

먼저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 공제율 50% 적용한다.

법인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 개인의 경우 최대 70%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임대인 소유 건물에 대해 전기

안전점검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상 업종에 '일정 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한 시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임차인과 상생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해 주고 있는 임대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계속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는 이외에도 50억원 규모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20억원 규모 일자리기금 청년기업 융자,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 운영, 신형시장 경영바우처 사업, 상공인 지식배움터 운영, 재정 조기 집행,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방세 신고납부 기간 연장·징수 유예 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최민식/기자

인천시, 녹색혁신 상생협력으로 지역 환경문제 해결한다

중앙-지방, 대-중소기업, 지역기관 협력 통한 맞춤형 환경개선 지원

인천광역시 지역 내 환경분야 개선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혁신기술 설비 제작 및 설치 지원을 위해 녹색혁신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7월 인천시는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SK인천석유화학 등과 지역 내 환경문제 해결 및 지역 맞춤형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1단계로 서구, 중구, 동구 일반공업지역을 대상으로 13개사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2단계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10개사 내외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은 인천시 내 환경개선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혁신기술 설비 제작 및 설치를 위해 정부, 지자체, 대기업 및 유관기관이 협업

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다. 인천광역시 인천테크노파크 및 인천상공회의소와 함께 환경취약 지역 내 혁신설비 설치 수요기업을 발굴하고 사업비 매칭 지원, 사후 점검 및 후속 연구개발 등을 지원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오염 저감 등 녹색혁신 기술·설비 설치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사업성과 확산 및 홍보 등을 추진한다.

SK인천석유화학은 보유 전문기술을 활용한 지역 중소기업 육성, Test-Bed 제공, 지역사회에 필요한 전문기술 현장진설 등 지원한다.

올해 '녹색혁신 상생협력사업' 지원기업 선정 공고는 2월 17일부터 3월 19일까지 진행되며 최종 선정평가를 거쳐 총 10개사 내외

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된 기업은 혁신기술 설비·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최대 60% 이내에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최종 "성공" 과제에 한해 민간부담금의 일부를 인천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공고문과 사업계획서 제출양식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인천시 내 폐기물처리업체, 약취유발 사업장 등 환경취약 중소기업이 기업환경개선 지원을 통해 친환경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그린경제로의 신속한 전환을 위한 기업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남/기자

금천구, 무한상상이카데미 혼합형학습 운영

현직 실무진 강사 영입으로 전문성 확대

금천구는 3월 6일부터 4월 29일까지 무한상상 스페이스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블렌디드 러닝 방식의 '무한상상 아카데미'를 진행한다

이번 강좌는 구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브러쉬 아두이노 유튜브크리에이터 영상편집 앱인벤터 퓨전360 등 초급과정으로 구성됐다.

특히 3D모델링 과정인 '지브러쉬'는 게임, VR, AR, 피규어제작 등의 정교한 작업이 가능한 그래픽 툴로 점토를 만지듯 컴퓨터 화면을 통해 직관적인 조작으로 '개인별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어 수강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결과물은 DLP 3D프린터로 출력해 제공한다.

또한, 언택트 시대 트렌드를 반영한 '유튜브 크리에이터', '동영상 제작·편집', '아두이노', '앱인벤터', '3D프린팅' 등 4차산업시대 핵심강좌도 마련되어 있어 구민의 관심도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강좌는 3월 6일부터 4월 29일까지 요일별로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참여형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강좌에 참여하고 싶은 주민은 2월 17일부터 23일까지 구 홈페이지 교육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1인 1강좌만 신청 가능하며 성인이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유성훈 구정장은 "이번 강좌는 4차산업혁명 시대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강좌로 주민들이 재밌고 쉽게 체험해볼 수 있도록 알차게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시대흐름과 주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주민들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성/기자

<p>MOO HAN SANG SANG ACADEMY</p> <p>2021 온·오프라인 초급 강좌 Blended Learning</p> <p>장 소: 금천구청 평생학습관 3강아실 접수 기간: 2021. 2. 17.(수) 10:00 - 2.23.(화) 18:00 선착순 마감.</p> <p>수 강 료: 무료 신청 방법: 온라인 (금천구교육포털: www.geumcheon.go.kr/edu) 문 의: 02) 2621 - 2190-5</p>		<p>유튜브 영상 제작</p> <p>나만의 콘텐츠를 기획하여 자원을 형성하고, 7인 크리에이터 되기 위한 기초 수업</p> <p>생인 / 10명 03.08. - 04.26. 월요일 19:00 - 21:00</p>
<p>3D프린팅</p> <p>FUSION360을 활용한 3D모델링을 3D프린터로 출력해보는 수업</p> <p>생인 / 10명 03.09. - 04.27. 화요일 10:00 - 13:00</p>	<p>동영상 편집</p> <p>영상의 용어를 이해하고, 7각 및 촬영, 편집을 다루는 기초 수업</p> <p>생인 / 10명 03.08. - 04.26. 월요일 19:00 - 22:00</p>	<p>ZBrush 3D모델링</p> <p>ZBrush 인터페이스에 대해 알아보고 나만의 피규어를 제작해보는 수업</p> <p>생인 / 10명 03.06. - 04.24. 토요일 10:00 - 13:00</p>
<p>3D모델링 방법자료 앱인벤터</p> <p>여러 프로그램을 통하여 영인벤터의 편리한 기능과 인터페이스 및 개발 과정을 학습해보는 수업</p> <p>생인 / 10명 03.11. - 04.29. 목요일 10:00 - 13:00</p>	<p>만들여오 IoT의 숲 아두이노</p> <p>IoT가 무엇인지, 아두이노를 통해 실제 해킹하고 실재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보는 수업</p> <p>생인 / 10명 03.06. - 04.24. 토요일 19:00 - 21:00</p>	

마포구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지금 신청하세요

23일까지 공모, 양성평등기금 3500만원 투입, 사업 별 최대 1000만원 지원

마포구는 양성평등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 발굴 및 사업수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마포구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의 아이디어를 오는 23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구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의 이념을 실천하고자 매년 양성평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경제활동 참여촉진, 일·가족 양립 지원, 양성평등 의식제고 및 문화조성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제·개정이 이뤄지는 조례와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양성평등기금을 조성·운영하고 있다.

올해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의 공모분야는 양성평등 인식제고를 위한 사업 여성폭력예방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업 등 세 가지로 사업별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마포구 소재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이다.

구는 사업 공모 후, 기금 사용목적, 지원사업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자부담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뒤 사업대상 기관을 최종 선정해 오는 4월부터 지원사



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마포구청 누리집을 참고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마포구 여성가족과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구는 영유아부터 중장년까지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교육사업, 활동가 양성사업, 안전지킴이 사업 등 6개 기관과 연계해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추진

한 바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을 통해 여성과 남성이 지역정책에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구가 앞장서 민간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활발히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조상순/기자

수원북부순환로 개통 4개월, 동~서 교통이 시원해졌다

2020년 9월21일 개통 이후 동~서 이동시간 및 시내도로 이동속도 단축

수원북부순환로가 개통한 지 4개월이 지났다. 이 도로는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지지대교차로에서 영통구 이의동까지 수원의 북부 경계를 따라 왕복 4차선 총 7.7km를 연결한다.

수원의 동쪽과 서쪽을 오가야 하는 시민들은 복잡한 도심이나 상습 정체구간인 영동고속도로를 지나지 않고 파장·조원·광교IC를 통해 수원시 내 곳곳을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수원북부순환로는 지난해 9월21일 개통됐다.

수원시가 개통 이후부터 지난 2월 7일까지 4개월여간 수원북부순환로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140일 동안 수원북부순환로를 이용한 차량은 총 380만대에 달한다.

일평균 2만7천여 대가 통행했다. 가장 많은 차량이 이용한 날은 3만 8천여 대, 가장 적게 이용한 날은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10월4일 1만1천여 대였다.

민간투자로 건설된 수원북부순환로의 운영 기준이 되는 '추정교통량'은 총 4만6천여 대다.

4개월간 추정교통량의 60%에 가까운 차량이 이 도로를 이용하며 최대 통행량 기준으로는 추정교통량의 80%를 넘길 정도로 수원북부순환로가 단기간에 자리를 잡은 것이다.

장기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일반적으로 겨울철 통행량이 감소하는 상황에도 수원북부순환로가 수원의 동서를 연결하는 도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던 셈이다.

특히 수원북부순환로는 주중에 더 많이 이용되고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 통행량이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 통행량에 비해 40%가량 많아 주로 출·퇴근 용도로 이용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원북부순환로는 빠른 이동뿐만 아니라 시내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 효과도 보이고 있다.

수원시는 수원북부순환로 개통으로 인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개통 후 한 달이 지난 지난해 10월 차량 2대를 이용한 비교 주행을 실시했다.

2대의 차량을 상현역에서 출발시켜 1대는 수원북부순환로를 이용하고 다른 1대는 창릉대로와 경수대로를 경유해 이목사거리에 도착하는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이었다.

출퇴근 시간의 절정인 오전 8시 정각에 2대의 차량이 동시 출발해 수원북부순환로를 이용한 차량은 8분 만에, 기존 도로를 이용한 차량은 38분 만에 도착했다.

구간 이동 소요 시간이 30분이나

단축되는 효과를 보여준 것이다.

기존 시내 도로의 체증을 개선하는 효과도 확인됐다.

수원시도시안전통합센터를 통해 출·퇴근 시간대 기존 도로의 차량 속도 및 소요 시간을 수원북부순환로 개통 이전과 이후로 나눠 비교하면 평균 이동시간이 최대 27%나 절감됐다.

새 도로 개통 전에는 지지대 사거리~창릉문사거리~광교사거리까지 7.4km를 이동하는 경우 오전 8시에는 29분, 오후 6시에는 30분이 걸렸다.

하지만 수원북부순환로가 개통된 후인 10월 이후 이동 시간이 점차 줄어들어 12월에는 오전 8시에 23.4분, 오후 6시에는 25.8분이면 같은 구간을 통과할 수 있었다.

통행 속도 역시 개통 전인 9월 오전에는 26.15km/h에서 개통 후인 12월에는 29km/h로 오후 6시 기준은 24.91km/h에서 26.2km/h로 더 원활해졌다.

뿐만 아니라 수원북부순환로는 대형 덤프트럭 등 중차량의 이용도 하루 1천여 대에 달해 수원시는 도심지 미세먼지와 도로파손 등이 감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북부순환로는 수원시와 타지역을 연결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장안구 이목동과 화성시 진안동을 연결하는 서부로로 이어져 광고에서 화성서부지역을 출퇴근하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영통구 매탄동에서 화성시 영천동을 연결하는 동안원천로와도 가까이 위치해 화성동부지역에서 수원북부지역으로 이동할 때 마치는 시내 도로를 경유하지 않을 수 있다.

즉, 3개 도로가 수원의 외곽을 순환하는 형태로 이어져 있어 수원시 전체 도로에 숨통을 틔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 향후 오산~용인 고속도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되면 시내

소통이 더 원활해질 수 있을 전망이다.

오산~용인고속도로는 국가간선도로망 확충과 수도권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연장 17.3km 중 11km가 수원시 구간이다.

이 중 8.3km는 터널로 건설 예정이다.

세류, 팔달, 광교 등에 출입 시설이 설치되면 외곽지역에서 수원시 내 구간을 통과하지 않고도 평택~화성 고속도로나 용인~서울 고속도로를 연결해 시내 교통 흐름은 더욱 원활해질 수 있다.

수원북부순환로는 수원시에서 최초로 진행된 민간투자 도로다.

만성적인 시내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숙원사업으로 지난 2004년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돼 사업의 물꼬를 텄고 2008년 말 수원 순환도로(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2014년 8월 실시협약이 체결돼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고 2017년 6월부터 공사가 시작돼 3년 3개월 만에 정식 개통했다.

최초 제안으로부터 16년이 걸려 도로가 완성된 것이다.

해당 도로의 운영관리권은 30년간 수원순환도로(가)가 갖는다. 2050년 9월 20일까지다.

그러나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가 폐지된 후 추진된 도로로 운영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수원시가 보전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15년간 운영 수익이 110%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수원시로 환원할 수 있도록 협약이 체결돼 도로의 이용이 늘어 초과수익이 발생하면 수원시가 수원북부순환로의 시설물 개선 또는 통행료 인하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사통팔달 수원의 명성에 걸맞게 시민들이 원활한 이동을 통해 더 나은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통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고양시, '친구야 책방가자' 프로젝트 추진

"고양시 중·고생이라면 누구나 서점에서 책 한권..."

고양시 중·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동네 책방에서 책 한 권을 살 수 있게 된다.

친구와 함께 동네 책방에 들러 이 책 저 책 고르는 재미는 덩이다.

고양시가 중·고등학생에게 1인당 15,000원 상당의 '고양 북패이 도서교환권'을 지급하는 '친구야 책방가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도서교환권은 고양시가 지정한 지역서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동네 책방에 방문, 참고서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의 책을 직접 고르며 책과 가까워지고 독서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도서구입에서 그치지 않고 마을서점이 주관하는 강연프로그램, 북콘서트, 학부모 독서동아리 운영 등 다양한 독서 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진행해 독서 효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 중·고등학생 약 57,000여명이 대상이다.

시는 오는 3월까지 관내 42개 중학교와 36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희망 학교를 접수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7일까지 대형서점과 온라인 서점을 제외한 고양시 지역서점 중 프로젝트에 참여할 서점을 모집한다.

참여 학교와 서점 모집이 끝나면 학교를 통해 학생 1인당 1만 5천원의 '고양 북패이 도서교환권'을 배부한다.

학생들은 도서교환권으로 지정 지역서점에서 자율적으로 도서를 구입



할 수 있다.

단, 참고서·학습지·월간지·문구류 등은 구입할 수 없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미래를 바꿀 책을 동네 서점에서 만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것"이라며 "지역에 독서 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역서점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시는 2019년부터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교를 통해 매년 책 1권씩 입학 선물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 프로젝트는 그 대상을 지역 중·고등학생 전체로 확대한 것이다.

김영근기자

iH공사,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계양테크노밸리 사업 추진 박차

인천도시공사는 15일 계양테크노밸리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1,194억원 규모의 원포인트 추경을 2월 중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신속한 보상 진행에 발맞추어 보상제원을 추가로 확보해 수도권 내 공공주택 활성화에 속도를 내기 위함이다.

계양테크노밸리는 계양구 굴현동, 동양동 등 일원에 17,290세대의 주택공급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2026년까지 4조 3,21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보상공고를 거쳐 12월부터 보상에 착수했으며 금년 7월 사전청약을 앞두고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관계자에 의하면 iH공사의 총

보상비는 2,500억원으로 상반기 집행예정액 1,253억원을 금년 본 예산에 반영했으나, 토지 보상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어 추가 보상비를 편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금년 추경 편성 추진은 지난달 25일 국토교통부의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보상 착수기간 단축추진 방침에도 부응하는 움직임이라고도 덧붙였다.

iH공사 이승우 사장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을 실행하는 대표 공기업으로서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 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종남기자



광명시, '광명희망평동사업' 취약계층 돌봄 더 촘촘하게



민·관협력 복지사업인 '광명핀셋 지원'으로 주목받았던 광명시가 '광명희망평동사업단'을 구성해 빈틈없는 취약계층 돌봄에 나섰다.

광명희망평동사업은 복지돌봄사업의 일환으로 18개동 거동불편 중증장애인 등 취약가구를 직접 방문해 건강과 안부를 확인하고 후원물

품을 전달하는 사업이다.

평동사업단은 반장 1명과 4개 팀 총 9명으로 구성됐으며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별로 순회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간다.

광명시는 광명희망평동사업단을 15일부터 7월 9일까지 5개월간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광명희망평동사업단 교육 및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 날 행사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 이상재 회장, 평동사업단 9명이 참석했으며 사업 설명, 안전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발대식 순으로 진행됐다.

광명희망평동사업단의 한 참여자는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이 더욱 외롭고 힘들거라 생각한다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돌봄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취약계층 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중요하고 또 중요한 일이다 돌봄에 100%는 없기에 광명희망평동사업단을 구축해 광명시 복지돌봄체계를 강화하고자 한다"며 "광명희망평동사업단 여러분들의 활동을 적극 응원하며 광명시가 돌봄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전순희/기자

즐거운 '집콕' 위해 다섯 가지 즐거움을 빌려드립니다

안양시립관양도서관, 실내 여가 콘텐츠 대출서비스 '가족오락관' 개시

안양시립관양도서관이 코로나 19로 인해 길어지고 있는 '집콕' 생활로 지쳐가는 시민들을 위해 이달 15일부터 '가족오락관' 대출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인다.

'가족오락관'의 '오락'은 여가를 즐겁게 보낸다는 본래의 의미에 다섯 가지 즐거움이라는 뜻을 더한 것으로 관양도서관에서 대출 서비스로 제공하게 된 다섯 가지 여가 콘텐츠를 가리킨다.

관양도서관은 기존에 도서에 한정돼 있던 대출 서비스를 DVD부터 웹툰 도서 잡지까지 세 종류의 콘텐츠에 추가 적용한 바 있다.

이번에 새롭게 더해진 두 가지 콘텐츠는 다빈치코드, 루미큐브, 젠가, 체스 등의 보드게임과 갈라바, 핸드벨, 전자드럼패드 등의 소형 악기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사용 방법을 익히고 즐길 수 있다.

보드게임과 소형 악기는 안양시도서관 도서대출회원이거나 누구나 1가구당 2점씩 2주간 이용할 수 있다.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자료를 사전에 신청한 다음에 도서관에 방문해 대출하면 된다.

DVD 등 이전부터 제공돼 오던 콘텐츠는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수시

대출이 가능하다.

관양도서관 관계자는 '가족오락관'을 통해 추운 날씨와 코로나 19로 몸과 마음이 위축돼 있는 시민들에

게 따뜻한 위로의 선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정부/기자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2021 함께하는 안양교육' 사업설명회 성료

안양시 인재육성재단가 지난 9일 유튜브와 줌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2021 함께하는 안양교육' 사업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날 사업설명회는 300여명의 관내 86개 초, 중, 고등학교 교사 및 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1년 안양시 교육의 주요사업과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안양과전교육지원청, 안양시 청소년재단의 사업을 소개했다.

안양시 공교육 지원사업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교육 사업은 학생이 행복한 교육사업, 학부모가 행복한 교육사업, 교사가 행

복한 교육사업, 미래사회 글로벌 인재 양성 총 4개 영역 2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대표사업은 안양시 진로체험 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창의융합 미래인재 양성 프로젝트 지원 사업 학부모 아카데미 지원 사업 안양시 원어민 화상외국어 운영 사업 등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사업설명회를 통해 안양의 미래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이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엄태준 이천시장,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한 소통 릴레이 펼쳐

올해 두 번째 비대면 화상회의의 현대아이파크 주민들과 진행

엄태준 이천시장은 15일 현장소통 '이천은 화목해요'를 대월 사동 7,8,12리 주민들과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했다.

이번 운영된 화상회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 화상회의를 이용해 지난해 방문하지 못한 20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두 번째로 현대아이파크 아파트에서 65회차 이천은 화목해요를 화상회의로 진행했다.

이날 화상회의에서는 시민들과 이

천시, 하이닉스 간의 소통 창구 개설 아이들이 안전한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하이닉스 공장정출로 인한 불법 주차 및 주차장 부족 등 공업지역 인근 주민들의 교육·주거환경과 관련된 불편사항들이 다수 제안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사동7리 이장은 "시장님께서 코로나 상황으로 바쁜 신 중에도 화목해요 비대면 행사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들어주심으로써 주민들의 삶이 풍요로워 진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엄태준 시장은 "시민들이 100%

만족하는 행정을 만들어 내는 것은 어렵더라도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좀 더 편안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천은 화목해요'는 지난 달까지 64회를 운영했고 관내 주민들과 만나 소통하며 뉴노멀시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소통채널로 자리매김해 왔으며 이달 19일에는 중포동 큰산아파트 주민들과 이천은 화목해요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성윤/기자

의왕시, 새일여성인턴사업 참여기업 모집

의왕시는 여성의 빠른 취업과 안정적인 근무를 돕기 위한 '새일여성인턴'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새일여성인턴'은 근로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인턴근무를 통해 업무 적응력과 자신감을 높이고 장기근무를 할 수 있도록 기업과 인턴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여성 일자리 사업으로 지난해 의왕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18개 기업, 21명이 인턴 지원을 받았다.

올해는 인턴 참여자 28명을 지원하며 인턴 1인 채용 시 기업에 320만원, 인턴에게 60만원을 지원해 총 38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참여조건도 한시적으로 완화되어 많은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이 참여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 기업이면 새일인턴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새일인턴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의왕새일센터에 구인등록과 알선을 신청하면 된다.

홍석일 일자리과장은 "시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하고 안정적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새일여성인턴'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동희/기자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 개발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앞장서겠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를 이끌어왔습니다 내일의 에너지를 주도해가겠습니다

- 무한한 태양빛을 전기에너지로 태양광발전소
- 육상과 해상 바람을 이용한 풍력발전소
- 도시 속 조용한 청정에너지 연료전지발전소
- 유기물의 광합작용을 이용한 광합바이오매스발전소(추진)
- 비화산지역에서 24시간 운전가능한 지열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주

경북도, '생명에너지원' 곤충산업 육성 본격화

기업 연계 곤충원료 육가공식품 및 간식류 공동개발, 올해 출시

경상북도는 대학-기업-연구기관-생산자단체 워킹 협력을 통해 생명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식용곤충에 방점을 두고 곤충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코로나19 확산과 세계 인구수 증가에 따른 식량안보 위기 대응책으로 곤충을 새로운 단백질 공급원으로 육성, 식용 곤충산업 핵심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본격적인 곤충산업 육성을 예고한 바 있다.

곤충은 소, 돼지보다 10분의 1의 사료로 단백질 1kg을 생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메탄·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은 2,850분의 1 배, 물 사용량은 1,500분의 1에 불과해 최근 주요 키워드인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에 맞물려 친환경·저탄소 단백질 '신생명에너지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기업, 연구기관과 연계한 워킹 협력을 통해 원료공급 안정화 생산·가공기술 고도화 일반식품화 유통 활성화 총 4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곤충산업 도약의 발판을 만든다.

도는 원료공급 안정화를 위해 곤충 및 양잠 생산자단체와 연계해



곤충원료 대량 전처리·1차 가공시설 건립과 ICT 기반 스마트 사육모델 연구를 추진하고 생산자단체는 공장형 생산체계 구축을 통해 고품질 곤충원료 및 소재를 기업과 가공업체에 연중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생산·가공기술 고도화는 경북대학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과 연계해 식용곤충 대량사육 신기술 및 기능성 먹이원 개발을 추진하며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은 단백질 추

출 등 기업 맞춤형 원료 가공기술을 개발하게 된다.

곤충원료 기반 일반식품 개발은 육가공전문기업인 에스푸드와 협력해 특정 소비자층을 겨냥한 육가공식품 및 간식류 개발에 나서며 올해 테스트 판매 및 정식 출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통 활성화는 경북농식품유통고육진흥원과 연계해 경북 온라인쇼핑몰 '사이소', 네이비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 유통거점을 확대·신설

하고 다양한 홍보 및 할인기획전으로 소비장벽 완화와 곤충식품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인식개선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각기 다른 분야의 전문성을 극대화한 결과물들은 유기적 연계를 통해 현재 곤충산업 전반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이 뛰어드는 산업 환경 조성은 물론, 안정적인 농가 소득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북도는 '21년 곤충산업 분야에 4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에스푸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곤충산업의 지속적인 육성 및 상호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이미 체결했다.

김중수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곤충은 단백질원으로써의 영양학적 가치뿐만 아니라 환경적 가치, 경제적 가치 또한 뛰어나,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육성해 나가야 할 산업이다"며 "뉴노멀 시대에 분야별 전문기관의 상호협력은 꼭 필요한 선택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도가 곤충산업의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키펀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김세기기자

'자동차 무단방치·무보험운행 행위는 범죄이다'

무단방치·무보험운행 근절 홍보 리플릿 배부

영천시시는 지난 10일 자동차 무단방치·무보험운행 행위 근절 홍보 리플릿을 제작해 16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했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도시 미관을 해치며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무보험운행 자동차는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방에게 피해 보상을 할 수 없어 시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시는 최근 5년간 적발된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해 136건 검찰청 송치, 8건 범칙금 부과하고 무보험운행 자동차 보유자에 대해 355건 검찰청 송치, 153건 범칙금 부과 조치

했다. 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무단방치한 자나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최대 150~2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상습 행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홍보를 통해 운전자들에게 무단방치·무보험운행 행위는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라는 경각심을 고취하고 나아가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한반식기자



대구시 IoT아카데미 'AIoT Tech Webinar' 개최

IoT혁신포럼, 'NVIDIA와 함께하는 AIoT Tech Webinar' 개최

대구시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스마트시티 분야의 최신 기술 동향을 지역에 공유하고 신기술 개발 및 기업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16일 '엔비디아와 함께하는 AIoT Tech Webinar'를 개최한다.

이번 웨비나는 대구시 지원으로 운영 중인 'IoT아카데미'의 전문인력 양성교육 프로그램으로 개최되며 세계적인 인공지능 컴퓨팅 플랫폼 회사인 NVIDIA와 함께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4차산업혁명 관련 최신 기술과 산업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AIoT 테크 웨비나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든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NVIDIA의 DLI/HER 프로그램과 '스마트시티를 위한 딥러닝 분석환경 통합관리 기술'이라는 주제로 AI 및 딥러닝 학습에 필수적인 인프라 기술과 인프라의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딥러닝 플랫폼 기술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대구시는 세계적인 기업과 지역 기업의 네트워크 기회를 제공하고 신기술에 대한 지역민, 지역 기업 및 기업의 관심을 높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기술혁신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한다.

지역의 예비창업자와 기업인, 학생 등 관심이 있는 시민들은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는 이번 웨비나의 참가신청은 allshowTV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문의사항은 IoT아카데미 전화 또는 이메일로 안내받을 수 있다.

'IoT아카데미'는 2017년부터 대구

NVIDIA와 함께하는 AIoT Tech Webinar

| 일 시 2020. 2. 16.(화) 14:00 ~ 17:00
| 참 여 전자신문 allshowTV 온라인 세미나(www.allshowtv.com)
| 세션안내

시 간	내 용	비 고
14:00 ~ 15:30	NVIDIA가 바라보는 AI의 과거 현재 미래 4차 산업에 있어 NVIDIA는 AI Computing Platform 회사로 전세계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발표에는 NVIDIA의 다양한 역사와 NVIDIA의 사업군, NVIDIA의 Data Center Platform에 대한 소개, Use Case 및 향후 AI를 구현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대한 제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NVIDIA KOREA 유응준 대표
15:30 ~ 16:00	연구자를 위한 NVIDIA DLI(Deep Learning Institute)/HER(Higher Education & Research) 프로그램 소개 NVIDIA의 기업 및 연구자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DLI(Deep Learning Institute)/HER(Higher Education & Research)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NVIDIA KOREA 문소리 과장
16:00 ~ 17:00	스마트시티를 위한 딥러닝 분석환경 통합관리 기술 AI 및 딥러닝 학습에 필수적인 인프라 기술과 인프라의 활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딥러닝 플랫폼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였습니다.	㈜비이랩 안주현 이사

*강연 내용 및 시간, 연사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시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역 산업의 혁신을 선도할 사물인터넷 분야 산업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과 지역의 미래 인재 육성·발굴을 위한 창의적 체험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11,300여명이 참여했다.

홍익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대

구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5+1 미래신산업에서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은 핵심 기술 중 하나"며 "지역 기업이 최신 기술과 비즈니스 트렌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남궁영기자

영주시,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 박차... '시장 활력 불어넣기'

전통시장 환경개선부터 금융지원 확대 등 '골목상권 활성화 힘' 쏟는다

경북 영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사업은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코로나 이후 골목상권을 회복할 수 있는 맞춤형 활력지원 사업을 추진해 지역경제 발전을 유도하는데 목적을 뒀다.

먼저 시장 기능회복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총사업비 45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올해 안에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비골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23억5천만원으로 오는 12월까지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은 16억6천만원을 투입해 올 연말까지 노후화된 비가림시설은 교체되고 화장실 등은 리모델링 된다.

영주 공설시장 외 4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골목상권 공간을 재정비하는 골목상권 특별환경개선사업은 16억6천만원을 투입해 올 연말까지 노후화된 비가림시설은 교체되고 화장실 등은 리모델링 된다.

시는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주민과 상생 발전하는 공동체 육성을 위해 '전통시장 특판행사 및 홍보지원'과 '호시탐탐 시장 탐험대 운영 지원', '영주시 상인연합회 교류 한마당 행사'도 추진한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은 관내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상으로 마케팅, 교육, 온라인플랫폼 등 시장경영



마우처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해 자생력을 갖춘 특성과 시장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지역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는 지원도 추진한다.

시는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시비 30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적극 동참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영업손실보상을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공고일인 2021년 2월 5일 이전 현재 영주시에 영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집합금지 업종은 15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100만원을 지급하며 2월 26일까지 신청받는다.

장기적인 불황으로 담보 능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자차액 보전'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및 이자차액 보전' 사업도 추진한다.

시는 설 명절 기간 중 상품권 집중 사용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2월 한달간 영주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월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10%할인 판매 한다.

15일 기준 총 630억원이 시중에 유통돼 전통시장의 어려움 극복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총사업비 79억원을 투입해 풍기인삼 관련 제조업 분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소상공인복지지원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을 올해 착공해 풍기인삼의 특화산업 발전과 생산성 향상, 경쟁력 확보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욱연 영주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 속에서 체계적인 사업추진으로 상인들이 시름을 덜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공공시설 복합형 대구행복기숙사, 본격 공사 돌입

안동시시설관리공단 특별교통수단 부름콜, '즉시콜 및 이용 대상자 확대 운영'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은 오는 3월 1일부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부름콜'의 이용 기준을 완화하고 즉시콜 운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용대상자의 심사를 완화하며 이용목적과 관계없이 인접 생활권 내에서는 운행이 가능해지고 치료 또는 진료목적의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내까지도 전면 운행하게 된다.

또, 이용대상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기요양등급 1~4등급, 일시적 이용자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6월부터 콜센터 운영시

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해 야간에도 즉시콜을 통한 이용접수가 가능해진다 이어 즉시콜을 확대 운영해 이용객이 원하는 시간에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성을 더욱 향상할 예정이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는 운전원의 친절 서비스 교육 및 차량점검을 강화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해 거동불편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가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세기기자



남궁영기자

유치지원을 위한 글로벌 플라자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카페테리아, 편의점 등이 들어서게 된다.

특히 지난 2019년 12월에 국토교통부가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2019년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50억원을 확보해 부족했던 주차시설을 추가로 건립하는 등 인근 지역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입지상으로는 중앙로역에서 800m로 교통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반경 5km 이내에 경북대학교, 영진전문대학, 영남이공대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 동성로의 밀집된 편의시설, 문화시설, 기술·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시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요지가

다. 한편 대구행복기숙사 건립사업은 대구시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공동 추진하는 협력사업으로 대구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건축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추진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행복기숙사는 원도심의 낙후된 주변 지역 도시재생과 연계해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포함되며 "2022년 하반기 완공되면 대학생들의 주거복지 향상과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는 대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궁영기자

부산시, '2021년 민생규제 혁신' 과제 대시민 공모

민생규제, 시민이 제안하고 부산시가 혁신한다

부산시는 2월 16일부터 3월 17일까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직결된 현장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 과제 대시민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모대상 분야는 국민 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총 5개 분야로 시민 생활과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다양한 규제가 포함된다.

부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과 단체, 학교에서도 응모할 수 있다.

이번 공모에는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 이벤트'도 실시한다.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응모된 제안은 소관부서의 의견 수렴 및 예비심사, 최종심사를 거쳐 8월경 우수과제를 선정해 시상을 진행한다.

남궁영기자



2021년 시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공모기간: 2021. 2. 16.(화) ~ 2021. 3. 17.(수)

공모자격: 부산광역시 시민 누구나

나의 제안이 대한민국을 바꾼다!

부산광역시는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시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취업, 창업 등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 애로, 제도, 규정 등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개최한다.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규제분야에 대해 애로 사항)을 주제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분야	세부 내용	비율
생활	국민 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복지 제도에 관한 ▶ 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	25%
	취업·일자리	▶ 청년·경력단절자·노년 등 취약계층 취업 ▶ 중소기업 지원	
경제	소상공인	▶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창업 및 경영 ▶ 소상공인 지원	25%
	신산업	▶ 신기술·신서비스·신사업분야의 제도개선 등 규제개선	

공모방법

- 제출처: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 접속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홈페이지 게시
- 제출방법: 부산시 홈페이지 제출 ▶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공모하기 7차면에 제출 전자우편 제출 ▶ azawony120@korea.kr
- 우편 제출 ▶ (47545)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신동, 부산광역시청 규제혁신추진센터) ▶ 우편은 공문지정 업무 소관청에 발송

선정기준

평가 기준	세부 내용	비율
창의성	규제혁신의 시급성, 타당성	25%
구체성	문제점 및 현행 규제의 근거와 이유, 제의내용의 논리성	25%
실행 가능성	제의내용의 실행가능성, 타당성	25%
효과성	목적 달성 가능성, 과제 해결 시 유용성	25%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추진단 (TEL. 051-888-2596)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TEL. 044-206-3996)

통영시 국가암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추진

6대암 무료검진

통영시는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고자 암검진사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국가암검진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개별 통보하고 있으며 전국 건강검진실시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올해 무료검진대상자는 흡수년도 출생한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하위50%이하 가입자 및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 6월말까지 유예신청을 한 짝수년도 출생자에 한해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만50세 이상은 출생년도와 관계없이 매년 대상암검진을 받아야 한다.

국가암검진 수검 후 6대암에 대해 암진단을 받은 경우 연간 최대 200만

원씩 3년에 걸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자격은 2021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0만3천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9만7천원 이하인 자에 한해 지원되며 의료급여수급자는 선정기준 없이 3년간 220만원 한도 내에서 대부분의 암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아암의 경우는 소득재산 기준에 적합하면 만18세까지 대부분의 암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소관계자는 "암은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경우 90%이상 완치가 가능한 만큼 검진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검진을 받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건강도시 통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광용기자

구분	검진대상	검진주기	검진방법
위암	만40세 이상	2년	위내시경 검사
간암	만40세 이상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	6개월	초음파검사+혈액검사
대장암	만50세 이상	1년	분변잠혈(대변) 검사
유방암	만40세 이상 여성	2년	유방촬영술
자궁경부암	만20세 이상 여성	2년	자궁경부세포검사
폐암	만54세-만74세 중 폐암발생 고위험군	2년	저선량 흉부 CT

창녕군 보건소, 코로나시대 책과 마음을 나뉘요

창녕군 보건소는 코로나19가 가져온 답답함과 우울한 일상을 위로받기 위해 매주 수요일을 '책 읽는 날'로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우울로 인한 정신건강 심리상담 건수가 지난해 총 92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블루 증상과 스트레스로 쉽게 상담센터 상담과 진료를 받지 못하는 대다수의 사람들까지 합치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고 할 수 있다.

세계적 팬데믹 현상으로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해야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방역수칙 준수가 생활의 기본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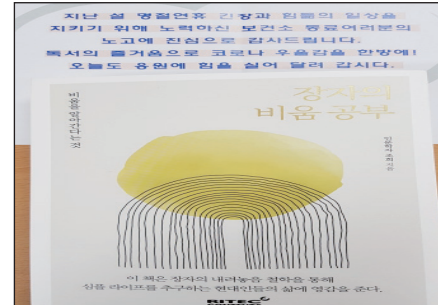
이번 '책 읽는 날'은 혼자 익숙해진 시간을 보내야 하며 비대면 관계가 일상인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우울감과 고립감에서 벗어나 책과 마음을 나누며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일상을 함께 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보건소는 매주 독서를 통해 남보다 먼저, 깊게 생각하고 창의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코로나19 입시예방법준비를 지혜롭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한정우 군수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지친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서는 독서만큼 좋은 것은 없다"며 "그 동안 코로나 방역대응으로 쌓인 스트레스를 독서의 즐거움을 통해 해소하고 직원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궁영기자



산청군 "귀농귀촌 파트너가 돼 드립니다"

귀농귀촌인 정착·도시민 유치 신규사업 추진

산청군이 올해부터 '농촌에서 살아보기' 등 다양한 귀농귀촌인 정착·도시민 유치 신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6일 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한 '2021년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2억6000만원을 확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귀농귀촌 지원사업은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귀촌인 농촌체험교육 귀농귀촌 멘토링 지원사업 등이다.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에게 최장 6개월 간 주거와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 운영자에게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인센티브 등을 제공한다.

산청군은 현재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할 마을·단체를 모집하고 있다.

'귀농귀촌인 농촌체험교육'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농촌체험활동과 기초 실용지식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귀농귀촌 멘토링 지원사업'은 지역주민을 귀농귀촌인의 멘토로 지

정,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와의 융화를 꾀하는 사업이다.

산청군은 이번 신규사업 이외에도 매년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 귀농인의 집 운영 등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귀농귀촌에 관심을 가진 도시민에게 산청군이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각종 축제·박람회 상담부스 운영, 귀농귀촌 안내도우미 운영, 귀농귀촌 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군은 신규사업은 물론 기존 사업들도 추진계획에 따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귀농귀촌 지원사업과 정책 덕분에 지난 2019년 321가구 511명, 2020년 401가구 707명의 귀농귀촌인이 우리 산청군으로 이주해 새로운 삶을 가꿔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제2의 삶을 일구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강영훈기자

진주시, "강길따라 빛따라 함께 걸어요"

시민들 발길 닿는 거리에 로고라이트로 빛 밝혀, 걷기 운동 장려

진주시는 시민에게 활동적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시민들이 걷기 운동을 위해 많이 찾는 장소에 로고라이트를 설치해 건강 거리를 빛으로 밝히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활동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활동으로 걷기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적당한 걷기 운동은 우울증 완화, 심뇌혈관질환 예방, 골다공증 예방 등의 효과가 있다.

특히 성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진주시는 이러한 걷기 운동을 장려하고 신체활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2019년부터 로고라이트를 이용한 건강 거리를 조성해왔다.

2019년에는 이현동 풍네포다리, 평거·신안동 녹지공원, 천전동 진치령터널, 금산면 금호지에, 지난 해에는 총무공동 김시민대교 근처 강변, 가호동 어린이 공원을 빛으로 밝혔다.

이 외에도 상평동 자전거 전용교량과 하대동 구 35번 종점 부근에도 로고라이트가 설치되어 저녁 시간에

걷기 운동을 하는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건강 거리는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걷기 운동을 하는 시민들을 응원하기도 하고 시민들의 포토 스팟이 되기도 한다.

특히 움직이는 바다 물고기와 우주선 등은 아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진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시기인 만큼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활동으로 걷기 만한 것이 없다"며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빛 따라 걷기 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전북도, 일자리·성장지원·판로 등 34개 사회적경제시책 홍보

도내 기업체, 시·군 민원실 등 배부해 기업활동 도움 기대

전라북도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책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 이 책자는 기반구축 및 거버넌스 형성, 일자리 창출, 판로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지원, 공유경제 활성화, 공정무역 지원 등 6개 분야 34개 주요시책의 추진일정, 지원내용 등의 정보를 수록했다.

이와 함께 전라북도에서 지원하는 기술개발 인증지원, 수출 및 판로지원 등 117개 중소기업 지원시책도 담겨있다.

전라북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통합설명회를 대신해 손쉽게 시책안내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내 유관기관 및 시·군청 민원실에 비치하고 사회적경제기업에 온라인 발송할 예정이다.

자세한 책자내용은 전라북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용만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에 발간한 사회적경제 시책안내서가 기업활동에 유익한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책들을 적극 발굴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승일/기자

일제강점기 군산 역사관 제5회 특별기획전

'수탈의 기억 V 글과 그림으로 본 항일과 반역' 주제로 5월 30일까지 전시

군산시는 오는 5월 30일까지 4개월간 일제강점기 군산 역사관에서 다섯 번째 특별기획전인 수탈의 기억 V '글과 그림으로 본 항일과 반역' 전시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한 줄의 글이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또 상처가 되기도 한다. 그만큼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것은 평생 동안 그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이번 전시는 일제강점기에 남긴 항일 애국지사들과 반민족 행위자들의 서화를 중심으로 작품 속에 담긴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될 것이다.

주요전시작품으로는 경술국치의 분을 잊어 자결한 매천 황현 선생의 유묵, 민족대표 33인 중 1인인 오세창 선생의 서예, 대마도에 잡혀가 순국하신 최익현 선생의 일생도 8곡 병풍과 편지, 일본 황족으로 태어났으나 황태자 이은과 부부로 맺어지면서 한국인이 된 이방자 여사의 8곡 병풍 등 50여 점이 최초로 공개된다.

이기간 도시재생과장은 "사회적거리두기가 1.5단계로 하향해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전시를 통해 선조들의 숭고한 항일정신과 기상을 되새기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마스크 착용, 관람객 간 거리두기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킨다면 유익한 전시가 될 것이라며 관람을 독려했다.



한편 지난해 6월 박물관 등록을 마친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국가문화유산 DB화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말까지 3,000여 점의 소장유물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등록으로 공립박물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태/기자

익산시, 아동 보호 대응체계 강화

24시간 대응체계 구축·유관기관과 협업해 현장 대응 강화

익산시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24시간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 보다 강력한 아동보호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최근 지역에서 신생아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해 이같이 강화된 대응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시는 24시간 대응체계를 통해 신고 접수단계부터 현장 대응까지 유관기관과 협업해 함께 대처한다.

특히 영아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한 통합 사례회의를 활성화해 면밀한 조사와 판단, 사후관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현장 출동 시 적극적인 사례 판단으로 보리 조치를 실시하고 1년 이내 2회 이상 아동학대 의심 신고 시 즉각 분리, 학대 행위자 신고 사의회 등 피해 아동 보호에 적극

적으로 대처한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 협조체계도 강화한다.

의료기관 협약추진으로 피해 아동의 신체·정서적 피해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경찰서와 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활성화 아동학대 대응 유관기관 간 협약으로 피해 아동 조기 발견 등을 추진한다.

또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내 발굴 대상자 조사를 통해 위기가동의 소재와 안전을 주기적 점검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교육과 사례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사업의 조기 안착을 위해 전담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즉각분리제도 대응 전담직원을 지정해 운영한다.

이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관심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와 캠페인을

전개한다.

시민들이 접하기 쉬운 '내고장소식지', '세금고지서' 등을 활용해 유관기관과 합동 캠페인 등 아동학대 인식 개선과 신고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시는 올해 초 아동학대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전담공무원 등 8명으로 구성됐으며 아동학대 신고접수부터 현장조사, 민간협력체계 구축 등 아동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학대피해아동과 위기의심 아동의 조기 발견과 보호로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선수/기자

전라북도인재개발원과 남원시 지역경제 손 맞잡다

전라북도인재개발원은 16일 남원시와 지역발전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상호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연초 전라북도인재개발원의 2021년도 업무보고 시 송하진 도지사는 직속기관의 동부권 이전 취지를 살려 인재개발원이 위치한 "남원시와 지역상생사업을 적극 추진하라"는 주문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9년 남원으로 이전한 전라북도인재개발원은 도청과 도내 14개 시군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기관으로 직원 50여명이 상주해 있으며 연간 7,230명 정도의 교육훈련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집합교육을 못하고 있으나, 코로나 전에는 매일 교육훈련 유동인구 200여명이 남원을 걸쳐가곤 했다.

이에 남원시와 전라북도인재개발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육생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상생 협력방안을 마련 추진하기로 이날 맞손을 잡았다.

인재개발원은 먼저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와 인력 등을 남원지역 내에서 최대한 활용하기로 협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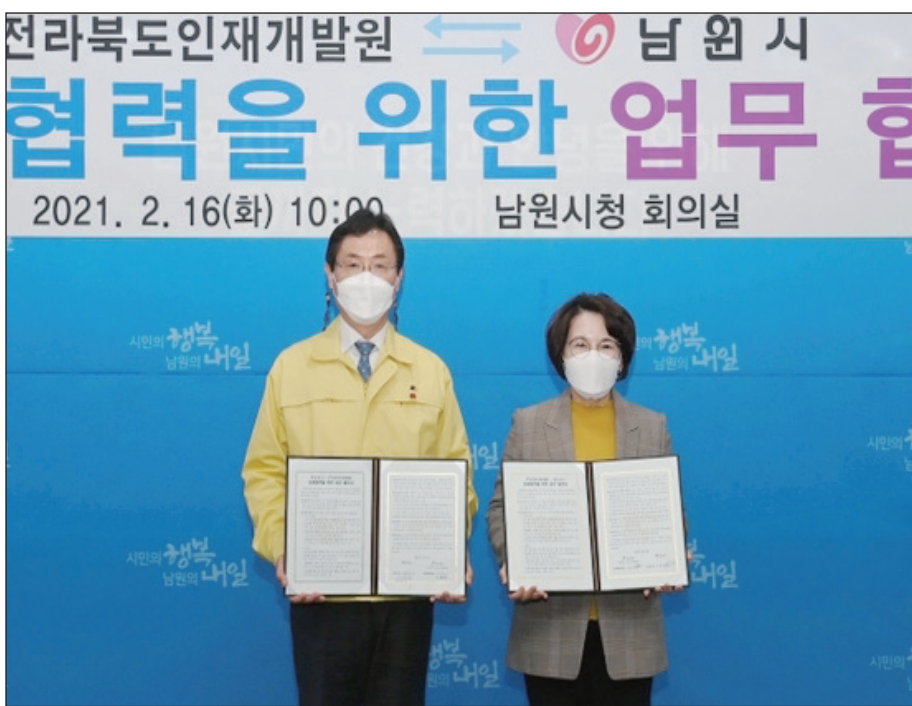
인재개발원 운영 경비 지출시 남원관내 장애인기업과 여성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업체의 상품 이용을 우선하고 수익계약 보수공사도 지역 영세업체를 최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인재개발원 보수공사와 식당운영 식자재, 사무공간 물품, 사무관리, 청소관리 및 식당운영 지역채용 인건비 등 연간 10억원 상당을 남원에서 소비하도록 지역 업체를 이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직원 월2회 '골목상권 이용의 날'을 시범운영하고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며 향후 장기교육생까지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까지 인재개발원 청사관리 및 식당운영에 일시사역을 포함한 남원지역민을 채용해 추진하고 있으나, 향후 퇴사 시 일자리가 생기면 제도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지역민 채용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인재개발원에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 지역업체 정보제공과 구입편의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장소 선정 시 남원과 연계된 장소를 최우선 검토해 교육생들의 소비창출까지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간 2,080여명이 참여하는 현장 학습 교육 장소를 최우선적으로 남원지역 문화·관광 시설과 연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본교육과정, 핵심리더과정) 2개 과정 12회 1,180명과 일반교육 15개 과정 36회 900명이 남원지역의 명소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원시는 원활한 현장학습 진행을 위해 과정별 현장학습 장소 추천, 문화관광해설사 등 필요 인력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재개발원과 남원시는 남원시의 문화재 및 관광지를 널리 홍보하고 향후 가족여행 등 지인 모임 시 다시 찾고 싶은 지역으로 각인시켜, 향후, 소비를 창출하는 유동인구 확산토록 해 지역경제, 골목상권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인재개발원 청사 유휴부지를 남원시민에게도 돌려준다.

인재개발원 청사 유휴부지에 도·시비 3억원을 들여 도시 숲 6,000제곱미터 2개소를 조성해 교육생에게 힐링 공간 및 공직생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남원시민에게는 가족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위라벨 문화공간으로 개방 제공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할 예정이다.

인재개발원의 도시 숲은 2개소 조

성하는데 그중 개발원 초입에 조성하는 도시 숲은 천년의 역사를 살아온 지리산 천년송 후계목 식재 등 미래 천년을 테마로 하는 도시숲을 조성하고 후원에 조성하는 1개소는 남원의 허브산업 특성을 반영한 삶의 향기를 테마로 조성된다.

아울러 최근 한국관광 100선으로 선정된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과 맞손을 잡고 교육생은 감성높이기에 도전한다.

"감성의 시대"유명 작가 미술작품을 통해 교육생 감성 제고를 위해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과 협약, 인재개발원 1층~3층 북도 벽면에 전시시설, 조명장치 등 설치해 소장 및 대여 작품 약 300점 중 매년 100점씩을 무상으로 전시해 교육훈련을 받으러 온 14개 시군 공무원들에게 인성과 감성 높이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이승희 전북인재개발원장은 "이번 협약은 인재개발원과 남원시 모두 상생 발전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협약 사항이 잘 이루어져 지역민과 함께 발전하는 전라북도인재개발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한주 남원시장은 "동부권 균형발전 마중물 역할을 위해 도 직속기관이 이전한 만큼 인재개발원이 남원 지역상권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준다면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고창군청 공무원 고창사랑상품권 구입.어려운 시기 함께 극복

전북 고창군청 공무원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16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군 공무원 노동조합이 고창사랑상품권 4000만원을 구입해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로 했다.

이번 지역상품권 구매는 지역 소상공인을 돕고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앞서 고창군은 공무원 복지포인트

일부를 고창사랑상품권으로 1억1000만원 상당을 구입하기도 했다.

이 기간 군청 소속 공무원과 유관기관 직원들은 자발적인 상품권 구매에 동참해 명절 전 전통시장과 관내 마트 등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했다.

군은 앞으로도 코로나19에 따른 지역 상권 침체를 극복하는 데 지역상품권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민공익수당 등을 비롯한 각종

시책 지원금도 지역상품권으로 지원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공무원과 주민들이 지역경제 살리기에 눈물겨운 노력을 보여주며 예상보다 많은 상품권이 판매돼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에게 보탬이 됐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상품권 활성화로 지역 내 자본의 외부 유출을 막고 순환 경제를 정착시키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태/기자

고창군, "겨울 잠 깨 보리·밀에 웃거름 주세요"

"초기 생육 촉진 시키고 생산량 늘릴 수 있도록 웃거름 적기 시용 중요"

고창군 농업기술센터가 겨우내 생장을 멈췄던 보리·밀 등 맥류 '생육재생기'를 설정하고 10일 이내에 웃거름을 적량 시용 해줄 것을 16일 당부했다.

군은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영농기술지도를 위해 SNS를 활용한 모바일 카드뉴스를 제작해 관련 농가에 발송했다.

'생육재생기'란 일동 후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 5일 정도 지속하면 생육이 다시 왕성하게 시작하는 시기를 말하며 봄철 웃거름을 주는 기준이 된다.

단, 겨울철 따뜻한 날씨에 의한 일시적 현상이 아닌 계속된 생육시만 생육재생기로 본다.

웃거름은 생육재생기 판단 후 10일 이내, 늦어도 2월 중하순까지 웃

거름을 줘야 뿌리 생장 촉진 시기부터 생육 후기까지 비료 효과가 지속돼 이삭의 열매가 많아지고 등숙이 좋아진다.

웃거름 사용량은 요소비료의 경우 10a당 9~12kg정도이고 모래땅이나 생육이 고르지 않은 포장재 생육 직후 요소 5kg을 1차로 사용하고 같은 양을 2차로 웃거름 나누어 주는 것이 좋다.

고창군 현행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겨울철 효자 작물인 보리, 밀 등 맥류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육재생기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 시기에 관리를 소홀히 해 수확량이 떨어지는 농업인이 없도록 기술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현태/기자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나주시, SNS 서포터즈 출범

2021년 서포터즈단 20명 선발 ... 관광, 먹거리 등 온라인 홍보대사

2천년 역사문화도시, 목사고을 나주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해줄 2021년 SNS 서포터즈가 출범했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최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비대면 ‘2021년 SNS 서포터즈 발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서포터즈는 지난 1월 공개모집과 심사를 거쳐 총 20명을 선발했으며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됐다.

올 연말까지 축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 대표 관광명소·먹거리에서부터 실생활에 유용한 시책, 시민의 훈훈한 미담, 일상에 활력을 주는 문구 등 나주만의 매력을 뽐내는 온라인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나주시는 현재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4개 SNS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해 활발한 SNS활동을 통해 사)한국인터넷소통협회가 주최한 ‘제13회 대한민국 소통어워즈’에서 기초지자체 시부문 ‘인터넷소통대상’을,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관한 ‘제6회 2020 올해의 SNS 시상식’에서 인스타그램 기초지자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한 바 있다.

특히 나주시청 유튜브 채널은 공무원들이 관광지 홍보를 위해 자체 제작한 ‘Feel the Rhythm of KOREA : NAJU’ 영상을 시작으로 다양한 영상 콘텐츠가 게시되면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해당 영상은 이남지밴드의 곡 ‘범 내려온다’를 배경음악으로 한 한국관광공사 ‘Feel the Rhythm of Korea’를 패러디한 영상으로 게시 3주 만

에 조회수 1만을 눈앞에 두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홍보 기능이 매우 중요한 시기에 우리 시 SNS 서포터즈단에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지역 관광, 먹거리, 유익한 시정 소식뿐만 아니라 이웃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오가는 소통 채널로 활성화될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안기자

무안군, 2022년 국·도비 확보 위해 선제적 행보

총 83개 사업, 5144억원 규모 건의사업 발굴 및 보고회 개최

전남 무안군이 2022년 국·도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15일 군청 상황실에서 김산 무안군수를 비롯해 국·도비 담당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제2차 국·도비 지원 건의사업 발굴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 1차 보고회 시 48건의 신규 사업 3023억원 규모의 건의사업을 발굴한 데 이어 이번 2차 보고회에서는 35건 2121억원의 신규 및 계속 사업을 발굴, 총 83개 사업에 걸쳐 5144억원의 사업을 발굴하고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2차 발굴 보고회 주요사업은 살펴보면,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인 ‘영산강 철도마을로 떠나니 꿈여울 시간여행’에 100억원, 비점오염저감 인공습지 조성사업인 ‘장포호 비점오염저감 사업’에 100억원을 발굴한 것을 비롯해 ‘남악 철도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30억원, ‘절지훈련 특화시설 에어돔 설치사업’100억원, ‘어촌어항 재생사업’378억원 등이다.

지난 1차 발굴 시 주요사업으로는 옹골 복합문화센터 생활SOC복합화



사업, 사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 양과·마을 전 과정 기계화 사업 등이었다.

군은 주요 발굴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 및 중앙부처, 도를 방문해 적극적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며 여타 중앙부처 공모사업에도 빠지지 않고 응모해 최대한의 국·도비를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산 무안군수는 보고회에서 “군민이 행복한 전남의 수도 플랫폼 무안 건설을 위해서는 주요 지역발전 사업에 대한 국·도비 확보가 필수”고 강조하며 “KTX 2단계 노선 개통과 맞물린 환황해권 교통 요충지로서의 무안, with 코로나 시대에서 군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며 경제를 회복하는 무안을 위해 힘쓰자”며 공직자들의 노력을 촉구했다.

조기석기자

“당신의 장롱 속, 김제의 기록을 찾습니다”김제시, 시민기록물 수집 공모전 추진

김제시에서는 지역의 변천과 생활상이 담긴 기록을 찾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제1회 시민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당신의 장롱 속, 김제의 기록을 찾습니다’라는 주제로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모분야는 1900년부터 1990년대까지 김제시 관련 민간기록물로 지역의 역사, 행정, 문화, 행사, 축제 등 시의 변천과 시민들의 생활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등이다.

공모유형은 사진, 영상 등의 시청각류와 일기, 가계부, 수첩, 등 문서류, 농기구, 생활용품 등의 박물관이다.

응모방법은 김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기록물을 지참해 김제시청 정보통신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기록물은 감정평가단 심사를 거쳐 입상자를 선정해 5월 말에 김제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으로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김제시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응모한 기증자 전원에게 기증증서를 수여하고 기증된 기록물은



김제시 기록관에서 영구 보존되며 향후 전시회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김진수 정보통신과장은 “시민의 기록은 공공에서 찾아볼 수 없는 지역의 정신을 담고 있어 역사적

인 자료로 남을 수 있다.기증받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 후대 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김현태기자

코로나19 여파에도 지난 설 대비 전복 판매 270% 증가

면역력 좋은 완도 전복 인기, 우체국택배 건수·완도군이습 판매량 늘어

코로나19로 인해 면역력에 좋은 식품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설 명절 선물로 완도산 전복이 큰 인기를 끈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군에 따르면 지난 달 18일부터 2월 10일까지 설 명절 기간 전복 판매 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설 명절 대비 완도군이습 전복 판매량은 270% 증가하고 우체국택배를 이용한 전복 발송 건은 67%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완도군이습을 통한 전복 판매 금액은 지난해 설 대비 171% 증가한 1억1천1백만원이며 판매량은 ‘20년 설에는 521kg, ‘21년 설에는 1,936kg으로 총 1,415kg이 증가했다.

우체국택배를 통한 전복 발송 건수는 총 29만 3662건이다.

지난해 추석에는 전복이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었지만, 그때보다 완도군이습 전복 판매액이 41% 늘었고 우체국택배 전복 발송 건은 73%가 늘었다.

한편 완도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복 등 수산물 소비가 둔화됨에 따라 설 명절을 앞두고 시청률이 높은 TV 교양 프로그램에 여러 차례 수산물을 집중 홍보했다.

또한 ‘옴므전남튜브’를 통한 전복 판매와 온라인 쇼핑몰인 ‘완도군이습’과 ‘우체국 쇼핑몰’ 내 명절기획관을 개설해 건당 5천원 할인 쿠폰을 지원하고 5~10% 할인 행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 설 명절에도 귀성과 역귀성을 자제하는 ‘모두 멈춤’ 운동을 전개하면서 향우회에 가족, 친지들을 위한 선물로 완도 특산물을 적극 이용해 줄 것도 요청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김영란법 개정안에 따라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이 20만원으로 상향된 것과 TV 방송 홍보, 온라인 할인 판매 등 비대면 마케팅을 강화한 점이 전복 판매 증가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덧붙여 “해마다 4~5월 전복 홍수

철하로 인해 가격 하락과 판매 부진이 반복돼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왔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온·오프라인 소비 촉진 행사를 통해 어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영욱기자



농수산물은 진도것이 최고지라~

진도아리랑몰 검색 진도아리랑 청정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인제군,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역 경기 활성화' 행정력 집중

인제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군은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인제제워드림카드와 인제 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을 실시하며 인제제워드림카드는 최대 80만원, 인제사랑상품권은 최대 20만원 총 100만원의 10% 특별할인을 펼치고 있다. 특히 올해 연간 추진하는 10% 특별할인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추진 책으로 군은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과 홍보활동도 펼치며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곤란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소득지원금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는 '주민소득지원금 원금 상환 연장'사업도 추진되며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한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업소는 물론 올해는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업종까지 생계보전과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이차채보전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또한 군은 도와 함께 중소기업대상으로 2,500억원 자금규모의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며 경영안정자금도 업체당 5억원~8억원, 2.0~3.0%의 이차보전금 지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업체당 시설자금 15억원, 2%의 이차보전 지원, 특수목적자금은 업체당 운전·시설자금 8억원, 1.5% 고정금리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지난해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로 인한 420억원 규모의 수해복구 사업이 동절기 공사 중지가 해제되면 공사가 속속 시작되는 등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의 집행액인 2,154억원을 상반기 중 신속집행을 통해 위축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군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며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물론 곳곳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근기자

영동군,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대기질 확인하세요"

충북 영동군은 건강과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대기질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미세먼지 신호등'을 영동읍 중심시가지인 삼일공원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신호등은 주변의 미세먼지 농도를 색상과 이미지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표출하는 장치다. 좋은 보통 나쁜 매우 나쁨으로 오염도에 따라 색깔을 구분해 표시한다. 군은 1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군민들의 미세먼지 줄이기 실천과 경각심을 환기시키고자 영동인구가 많은 삼일공원 내에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 완료했다. 군은 어느 방향에서나 확인 가능한 4면형이면서 유지관리비가 적은 제품으로 선정했다. 신호등은 미세먼지 농도 표시뿐 아니라 오존, 온도, 습도, 감기지수 등 다양한 정보를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고 미세먼지와 오존주의보·경보 발령 시에는 경고 문구도 표출할 수 있다. 마치 도로 위의 교통신호등처럼 연속적으로 바뀌면서 주민 누구나 미세먼지 등 대기상태를 손쉽게 알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환경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있다"라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군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신호등의 관리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만식기자

횡성군, '2021 우리마을 도량살리기 사업' 5개소 대규모 선정

횡성군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주관하는 '2021년 우리마을 도량살리기 사업' 공모에 5개소나 대거 선정되며 관내 도량살리기 사업 활성화를 알렸다. 횡성군은 한강유역환경청이 한강상류의 훼손된 마을도량의 건강성 회복과 옛 모습 복원을 위해 실시한 '우리마을 도량살리기 사업' 공모에 적극적으로 응해 신규사업 2개소, 사후관리사업 3개

소에 선정되며 한강유역 공모 사업비 7억 1천만원 중 약 1억 5천만 원에 해당하는 기금을 확보했다. 한편 횡성군은 2015년 갑천면 안매일천 도량살리기 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갑천면 안매일천, 울동천 및 안흥면 소사천의 사후관리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온 바 있으며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유치해 신규사업 2

개소를 대상지로 추가 확보했다. 심승보 환경관리과장은 "도량살리기 사업은 지역 주민의 관심과 참여 의지가 높은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좋은 결과가 있어 기쁘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통해 도량살리기 사업의 모범이 되어 앞으로 이 사업이 횡성군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등원기자

횡성군, '2021 우리마을 도량살리기 사업' 5개소 대규모 선정

횡성군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주관하는 '2021년 우리마을 도량살리기 사업' 공모에 5개소나 대거 선정되며 관내 도량살리기 사업 활성화를 알렸다. 횡성군은 한강유역환경청이 한강상류의 훼손된 마을도량의 건강성 회복과 옛 모습 복원을 위해 실시한 '우리마을 도량살리기 사업' 공모에 적극적으로 응해 신규사업 2개소, 사후관리사업 3개

소에 선정되며 한강유역 공모 사업비 7억 1천만원 중 약 1억 5천만 원에 해당하는 기금을 확보했다. 한편 횡성군은 2015년 갑천면 안매일천 도량살리기 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갑천면 안매일천, 울동천 및 안흥면 소사천의 사후관리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온 바 있으며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유치해 신규사업 2

개소를 대상지로 추가 확보했다. 심승보 환경관리과장은 "도량살리기 사업은 지역 주민의 관심과 참여 의지가 높은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좋은 결과가 있어 기쁘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통해 도량살리기 사업의 모범이 되어 앞으로 이 사업이 횡성군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등원기자

속초시, 2021년 빈집정비사업 추진

속초시가 오랫동안 거주하지 않은 빈집으로 인해 화재 발생 및 붕괴 등 안전사고 방지와 더불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속초시는 이에 따라 1년 이상 방치된 노후 건축물 중 붕괴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공익상 유해하거나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빈집 정비를 위해 시비 5천만원으로 3동을 선정해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이번 빈집 정비사업은 실태조사를 병행해 추진하는 만큼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를 구축해 향후 빈집 정비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연차별 계획 수립은 물론 빈집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2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빈집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원철호 시 건축과장은 "오래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등 주민의 정주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영근기자



삼귀연 동해시장, 동서고속도로 완전개통 염원 챌린지 동참

평택 ~ 삼척 간 동서고속도로 개통으로 동해에서 평택까지 3시간

삼귀연 동해시장이 평택~삼척 간 동서고속도로 완전개통을 염원하는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7개 회원 시·군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동서고속도로 완전 개통의 필요성을 전국민에게 홍보할 목적으로 시작됐으며 시장·군수를 시작으로 다음 참가자 3명을 릴레이로 지목해 메시지 파급 효과를 높여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재 평택~삼척 간 동서고속도로는 평택~제천 구간만 개통되고 제천~삼척 구간은 미개통 구간이다. 작년 8월, 제천~영월 구간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며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으나, 영월~삼척구간은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다. 이에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는 올



해 5월 고시 예정인 제2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에 영월~삼척 구간이 중점추진 구간으로 반영돼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고 있다. 최만식기자

제47회 신사임당상 수상후보자 추천

강릉시는 여진 인품과 부덕을 갖춘 훌륭한 어머니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향토 문화 창달에 기여한 여성을 선발하는 '신사임당상' 접수를 받는다. 이에 제47회 '신사임당상'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공고했으며 후보자 추천서를 오는 3.10.까지 제출해야 한다. 자격요건으로는 50세 이상인 여성으로서 강원도에서 출생하였거나, 추천 기준일 현재 강원도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전문분야 또는 그 밖의 영역에서 여성의 자질 향상 및 향토 문화

발전에 기여한 여성, 봉사활동 또는 전문분야에서 주민 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여성,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모범시민으로 양육한 여성이어야 한다. 수상자 발표는 오는 4.30까지 개별통보되며 시상식은 5.28. 강릉아트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지역사회 발전과 향토문화 창달에 기여한 여성을 선발하는 시상이니만큼 후보자를 적극 추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등원기자



이웃과 같이 슬기로운 아파트 자치생활이 시작된다

아파트 내 갈등 및 아파트 공동체 회복 위한 활동 지원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자동차 지원사업 추진

강릉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친환경 자동차 구입 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비 약 168억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약 2,000대, LPG 화물차 신차 구입 100대 및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약 900대가 사업 대상이며 예산 범위에서 지원된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은 오는 3월 10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며 신청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또한,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은 오는 3월 10일까지 방문 또

는 등기로 접수하며 신청대상은 강릉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보급이다. 친환경 전기자동차 지원사업은 제작·판매사를 통한 온라인 전산시스템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강릉시 관계자는 "여러 지원사업을 통해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고 청정한 강릉이 되도록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등원기자

추천시마을자치지원센터는 아파트의 자치 활성화와 건강한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2021년 아파트 자치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자치 활성화 지원사업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주민이 함께 아파트 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아파트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을 수립,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사업의 구성과 운영과정에서 아파트 내 다양한 구성원들과 수의 과정을 통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치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대상은 추천 내 아파트며 참여를

원하는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대표로 3월 15일부터 3월 26일까지 추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로 사업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아파트 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사업을 자유롭게 구성하면 된다. 신청된 사업은 시민권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입주주민 참여 정도와 자치 활성화에 적합한 사업 여부를 중점 심사한다. 신청자 중 10개의 아파트를 선정해 아파트별 최대 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사업의 이해 및 신청을 돕기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2월 17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7시 2회에 걸쳐 유튜브로 진행한다. 또 사업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원하는

장소를 직접 방문해 컨설팅하는 '찾아가는 길잡이'도 운영한다. 선정 후에는 아파트별 현황 진단과 수요파악을 통해 주민참여 및 속의 과정을 지원하는 '맞춤형 멘토링'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천신청 홈페이지의 타기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추천시마을자치지원센터의 SNS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전화를 통한 문의도 받고 있다. 추천시마을자치지원센터 관계자는 "본사업의 운영 경험을 통해 아파트 자치에 한발 다가설길 희망하며 나아가 아파트가 소통하며 상생할 수 있는 행복한 주거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근기자



2021년 '제24회 보령머드축제' 공식 포스터 선보어

보령축제관광재단, 포스터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선정 완료

보령시는 보령축제관광재단에서 제24회 보령머드축제 공식 포스터를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단은 지난해 실시한 '제24회 보령머드축제 포스터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출품작을 대상으로 축제 및 디자인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각 1작품씩 총 4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대상작으로 선정된 '다같이 놀자 모두 머드로'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김태한 씨의 작품으로 일상을 탈출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보령머드축제장에 모여 남녀노소, 내·외국인 구분 없이 모두 하나되어 머드를 뒤집어쓰며 축제를 즐기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대상 작품은 오는 7월 23일부터 8월 1일까지 개최되는 제24회 보령머드축제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지난해 온라인으로만 진행되었던 보령머드축제는 올해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합쳐진 하이브리드형 축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고정화/기자



청양군,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40억 투입

경유차 조기폐차·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정부 기조에 맞춰 기후대응팀을 신설한 청양군이 올해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40억원을 투자한다.

16일 군에 따르면, 올해 추진하는 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등 10가지로 미세먼지나 질소산화물 같은 대기 오염원 제거가 목적이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중 건설기계다.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연속 청양군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최종 소

유자가 3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등록제원과 기준가액표를 비교해 유사차량의 기준가액을 적용한다.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은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신차 구입 시 4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이며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고정화/기자



논산시, 2021년 농업대학 신입생 모집 전문농업인 양성 '박차'

논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논산농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최고의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해 '2021년 논산농업대학' 신입생을 모집한다.

올해 진행되는 과정은 농식품공학과 치유농업학과 채소학과 딸기학과 등 4개 과정으로 각 과정 당 30명의 수강생을 모집할 예정이며 모든 과정은 코로나19 단계에 따라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이론과 실습 과정을 병행해 추진된다.

모집 대상은 20세 이상 논산시민 중

관내 주소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농업을 희망하는 사람이며 농업경영체 등록자, 학업계획서 우수자, 농업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을 우선 선발한다.

2021년 논산농업대학 참여를 원하는 농업인은 3월 12일까지 입학지원서 학업계획서를 비롯해 해당하는 자에 한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관련 자격증사본, 친환경인증서 등을 첨부해 논산시농업기술센터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시는 연령 및 영농규모, 학업계획서 자격증 등을 종합평가한 후 교육수준 평가 등 학과별로 별도의 면접과정을 거쳐 최종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담당자는 "새로운 농업기술 습득과 현장에로서 해결 등 농업인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맞춤형 교육방식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함께 발전하는 농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예산군, 윤봉길의사유적 체계적인 정비 나선다

예산군, 윤봉길의사유적 체계적인 정비 나선다

예산군은 사적 제229호인 '윤봉길의사유적'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정비를 위한 윤봉길의사유적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 문화재청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번 종합정비계획은 사적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미래수요와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며 향후 윤봉길의사유적 관련 사업 추진의 방향과 뼈대가 될 전망이다.

군은 사적지 품격에 맞는 경관 조성 및 윤봉길의사유적의 역사·문화적 상징성 강화, 윤봉길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 거점의 역할 및 사적 간 유기적인 연계와 정비 등을 통한 방문객의 편의 증진 등을 종합정비계획의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먼저 단기계획으로는 야생조화원 조성 및 생태연못 데크 설치 소나무 숲 정비 산책로 조성 윤봉길의사기념관 확충사업 등이 있다.

특히 윤봉길의사기념관 확충사업 주요내용은 애국정신 체험 교육 공간 구축과 쾌적한 관람서비스 제공, 전시의 이해·몰입도 강화, 유물 보존을 위한 기념관 리뉴얼, 교육관 신축, 사무실 이전 등을 주요 골자



로 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총사업비 55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중기계획으로는 진입광장 축소 및 기념관 앞 광장 조성 기존 주차장 축소 및 예비 주차장 조성 저항당 담장정비 무궁화 열차 도입 등을 관광발전전략으로 수립했다. 아울러 장기계획으로 목바리 조성 도중도 무궁화 동산 학습원 조성 휴게시설 신축 신규주차장 조성

도중도로 연결되는 교량 설치 등 계획을 수립했다. 장기계획 관광시설사업소장은 "이번 종합정비계획 수립과 문화재청 승인을 통해 윤봉길의사의 역사·문화적 상징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윤봉길의사 사적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천안시, 학대예방을 위한 아동보호 홍보 리플릿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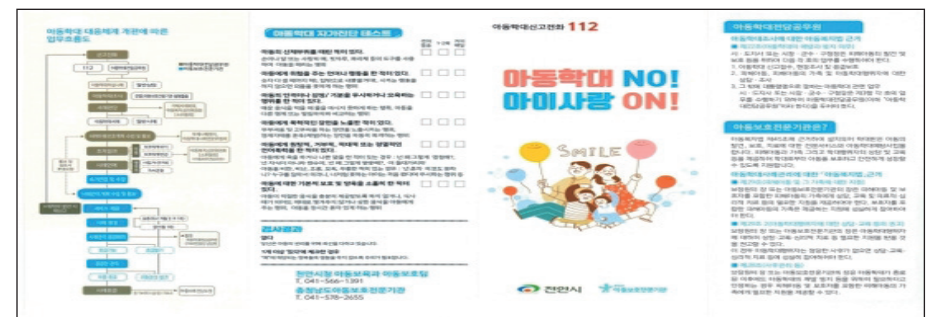
아동학대 신고방법 등 담은 리플릿,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에 배부

천안시는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아동보호 홍보 리플릿 7,200부를 제작해 지역 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아동보호 홍보 리플릿에는 아동학대의 종류와 정의 아동학대 의심정황 아동학대 신고방법 아동학대 자가진단 테스트 등이 담겼다.

아동학대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4가지로 나뉘며 아동의 울음소리 또는 비명이 계속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등 아동학대 의심정황이 확인되면 곧바로 112에 신고해야 한다.

아동의 이름, 성별,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아동이 위험



에 처해있거나 학대가 의심된다면 신고할 수 있고 의료인·유치원·어린이집 등의 아동관련 직업군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면 즉시 112로 신고해야 한다.

아동학대 자가진단 테스트는 스스로 아동학대 여부를 점검해 학대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박경미 아동보호과장은 "아동학대에 대한 천안시민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하다"며 "아동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천안시를 만들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AI Artificial Intelligence

교육도시

오산

임실군, 얼굴 없는 천사 훈집 덕에 설 명절 기부 행렬

사회복지시설 16개소, 관내 저소득층에 명절 전 전달 훈훈



임실군이 연초 얼굴 없는 천사의 훈집 효과로 각계각층의 기부 행렬이 이어지면서 더욱 훈훈한 설을 보내게 됐다.

군에 따르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불우이웃을 돕고 싶다는 뜻으로 쌀, 마스크 등을 전복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솔라파크에너지와 삼진강다슬기마을은 지난 3일과 4일 관내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해 달라며 각각 쌀 500kg, 400kg을 전복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기탁했다.

그동안 전주시와 완주군에 기부활동을 해오던 솔라파크 윤근성 대표는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을 접하고

임실군에 기탁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삼진강다슬기마을 최기수 대표는 “그동안 꾸준히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갖고 기부를 해왔는데 얼굴 없는 천사 소식에 더 기부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졌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9일에는 전국한우협회임실군지부도 한우 112kg을 전복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기탁했다.

같은 날 한국수자원공사삼진강댐지사 물사랑나눔단도 마스크 7300매를 전복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아동시설에 지정기탁했다.

코로나19로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해, 학생들의 접촉이 빈번한 지역아동센터에 기부

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임실한돈협회도 돼지고기 1톤을 기탁해 관내 저소득층 338세대, 관내 사회복지시설 11개소에 전달됐다.

지난달 25일에는 임실연합중기 임원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100만 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

각계각층에서 쏟아진 온정은 설 명절 이전에 사회복지시설 16개소와 관내 저소득층 356가구에 전달됐다.

기부 물품을 전달받은 장애인 시설 관계자 노 씨는 “코로나19 여파로 시설에 기부도 들어오지 않고 명절이 다가오면서 걱정이 많았다”며 “그런데 많은 분이 도와주셔서 시설에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심 민 군수는 “얼굴 없는 천사로 시작된 우리 군의 기부 문화가 각계각층으로 확산 되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훈훈한 설을 보내게 됐다”며 “우리 주위에 불우한 이웃들을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14일 삼계면이 고향이라고 밝힌 한 익명의 기부자는 임실군 관내 저소득가구, 특히 한부모 가정과 조손가정 등을 위해 3억7080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해 큰 화제를 모았다.

이남출기자

어느 사회복지무요원이 시각장애인 공무원에게 건넨 빛

“공직사회 적응과 맞은 바 소임 다할 자신감 심어줬다”고 마음 전해



벽/교통지도과/교통행정과-자동차창구/벽/중앙홀/복도/안내창구. 누군가에게 압도처럼 보이는 회계처리 프로그램 ‘엑셀’ 파일 상의 단어 나열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눈이 고 빛이다.

“1층 중앙홀에서 왼쪽으로 들어가 교통행정을 지나면 나옵니다” 시각장애인 광산구 공무원 박성진 주무관은, 교통지도과 위치를 묻는 민원인의 물음에 능숙한 설명으로 응대했다.

다 이 단어 나열 문서 덕분이다. 출퇴근으로 3층 사무실에 들고날 때도, 업무 차 다른 부서를 방문할 때 이 문서는 요긴했다.

이젠 광산구청 지하 1층부터 8층 옥상까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속속들이 꿰고 있을 정도다.

지난해 11월까지 박 주무관은 답답했다. 구청 전체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구 홈페이지에 있는 구 청사 안내도와 문서는 참조용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시간과 공을 들여 시각장애인 스틱과 몸으로 더듬으며 부서와 시설 물의 위치를 파악해놓으면, 6개월 단위로 진행되는 인사·부서 이동은 쓰나미처럼 그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같은 부서에서 대체부수로 행정사무를 보조하던 이준혁 사회복지무요원은 이런 사정이 안타까웠다.

돕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닿았을까. 이 요원에게 간단한 알고리즘 하나가 떠올랐다.

대학에서 전공하며 배운 컴퓨터와 프로그램의 원리, 박 주무관의 업무를 보조하며 알게 된 시각장애인을 컴퓨터의 특성을 고려하면 뭔가 박 주무관을 도울 방안이 나올 것 같았다.

마우스 없이 방향키와 음성 메시지

로 구청 어디에 뭐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문서는, 그렇게 탄생했다.

12월 완성된 ‘광산구청 텍스트 안내도’ 문서는 모두 9장으로 구성되었고 구청 각 층이 단면도처럼 담겨있다.

박 주무관이 처음 이 문서를 열었을 때, 헤드폰으로 ‘중앙홀’이라는 음성이 들렸다.

왼쪽 방향키를 누르자 ‘벽’이라는 말이, 반대 방향키를 누르자 다시 ‘중앙홀’이라는 메시지가 들렸다.

문서는 간단했지만 실용적이었다. 디딘 속도였지만 구청 전체 구조는 컴퓨터 방향키의 움직임과 함께 박 주무관의 머릿속에 하나씩 그림처럼 입력됐다.

이제 부서이동이 있으면 몇 칸의 단어만 새로 고쳐 입력하면 된다. 평소에도 이 요원은 박 주무관의 눈이 돼줬다.

점심 시간 구내식당에서 배식을 도와 같이 식사하며 말동무를 해주고 이동할 때는 길잡이 역할을 자처했다.

광산구 블로그를 담당했던 박 주무관에게 사진과 영상 같은 시각 이미

지를 옆에서 자세히 설명해준 것도 있었다.

얼마 전 근무부서를 옮긴 박 주무관은 “공직 첫 근무지에서 준혁 씨를 만난 것은 정말 행운이었다”며 “그의 도움은 단순한 선행을 넘어 시각장애인 내가 공직사회에 적응하고 싶은 바 소임 다할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줬다”고 말했다.

이 요원은 5월 소집해제를 앞두고 있다.

그의 행정보조를 받은 광산구 홍보실 직원들도 “이런 사회복지무요원은 더 없을 것이다”며 벌써부터 빈자리를 걱정할 정도다.

이 요원은 “소집해제 뒤 중단한 학업을 마치고 4차산업혁명기술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 이 요원이 만든 문서는 기술적인 주목을 받지 못할 것 같다.

하지만 그 문서에 담긴 배려의 마음만은 그 어떤 첨단기술도 도달할 수 없는 울림으로 남지 않을까. 이 요원이 만들어낸 4차산업혁명기술이 기대되는 이유다.

김덕윤기자

영암군 민속씨름단, “설날장사씨름대회 3체급 석권”최강구단 재입증

장성우 백두장사, 오창록 한라장사, 허선행 태백장사 등극

영암군 민속씨름단이 대한씨름협회 주관 ‘2021 설날장사씨름대회’에서 백두장사와 한라장사, 태백장사 등 3체급 장사에 등극하는 눈부신 쾌거를 거뒀다.

지난 2월 10일부터 15일까지 경상남도 함천군민체육관에서 열린 올해 첫 대회인 ‘2021 설날장사씨름대회’에서 영암군민속씨름단은 3체급에서 정상 자리에 오르면서 모래판의 최강구단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11일 펼쳐진 태백장사 결정전에서는 올해 영암군민속씨름단에 새로이 영입된 허선행 선수가 4강에서 신홍강호 울주군청 노범수 선수를 2대 1로 물리치고 장사결정전에서 화려한 기술에 앞세워 수원시청 문준석 선수를 3대 2로 극적으로 승리하며 태백장사 등극과 함께 개인통산 2번째 태백장사에 올랐다.

또 대회 세째날인 13일에 펼쳐진 한라장사 결정전에서 오창록 선수가 용인백옥쌀 우원원선수를 3대 1로 가볍게 제압하면서 개인통산 7회째 우승하면서 한라급 절대강자로 우뚝 섰다.

넷째날인 14일에는 2회 연속 천하장사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장성우 선수가 관록의 울주군청 정경진 선수를 3대 1로 압도적인 실력 우위를 보이면서 또 한번 백두장사를 차지했다.

허선행선수와 오창록, 장성우선수



는 탁월한 기량을 바탕으로 역동적이고 화려한 기술씨름의 진수를 보이면서 전국의 씨름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이를 통해 영암군의 특산물인 매력한우와 달마지쌀 등 우수 농·축·특산물을 시정자들의 뇌리에 각인시키면서 지역 홍보도 우미 역할도 충실히 수행했다.

한편 영암군민속씨름단은 씨름계 아이돌스타인 태백급의 허선행선수와 금강급의 김진호 선수를 신규 영입해 선수층을 보강했으며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등의 예능 방송출연 및 각종 민속씨름대회 참여로 군정 홍보와 함께 영암의 브랜드 파워를 키워가고 있다.

이로써 영암군민속씨름단은 2017

년 창단 이후 이번 대회까지 천하장사 2회를 포함해 34회 장사 배출, 전국체전 금메달 2개, 단체전 우승 3회 등 총 39회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하면서 대한민국 씨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영암군민속씨름단이 창단 후 4년 만에 태백에서 백두까지 모든 체급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그랜드 슬램을 달성해 영암군 민속씨름단이 씨름판의 절대강자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면서 “영암군 민속씨름단이 한국씨름과 영암군의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남출기자

‘제 21대 대한노인회 남해군지회장 취임식’개최

제21대 대한노인회 남해군 지회장 취임식이 15일 노인복지관 3층 강당에서 열렸다.

신임 이재신 회장은 지난해 12월 22일 치러진 대한노인회 남해군지회 지회장 선거에서 ‘노인지회를 바꾸는 새로운 열정’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당선됐다.

이날 취임식에는 장충남 남해군수와 이주홍 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군의원회 분회장 등이 참석해 신임 회장 취임을 축하했다.

21대 지회장 임기는 4년으로 2021년 2월 12일부터 2025년 2월 11일까지다.

이재신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앞으로 노인회 정관과 지방조직 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기준과 원칙에 따라 모든 일을 합리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우리 군이 장충남 군수님의 노력으로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된 만큼 속도를 내고 있는 후속 사업들이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대한노인회 남해군지회가 가교 역할을 충



실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충남 군수는 축사를 통해 “남해군을 지키는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륜을 이어받아 남해 군민이 행복한 삶을 이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어르신들이 편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도성훈 교육감, 인천보건교사회에 감사패 전달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지난 15일 코로나19 현장 선별진료소 업무지원에 나선 보건교사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천보건교사회 소속 보건교사들은 의료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별진료소 업무에 도움이 되기 위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했으며 보건교사들은 겨울방학을 반납한 채 거주지 인근 선별진료소에서 방역 관련 행정 및 선별검사 등의 업무에 지원했다.

3주 동안 주안역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봉사에 참여한 부평서초등학교 이연수 교사는 “이번 활동이 우리 사회에 뜻깊고 선한 영향력이 되길 바란다”며 “학교로 돌아가 현장에서의 경험을 학생 교육에 전달



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의료봉사활동에 참여한 보건교사뿐만 아니라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안심

학교 실현에 노력과 헌신을 다하는 교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세종시새마을회 2021년 회장단 선출

윤대근 회장 등 연임 김영제 NK병원 이사장 직장회장 신규 선출

세종특별자치시새마을회가 최근 ‘2021년 정기총회’를 열고 2021년 회장단 구성을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

2021년 회장단은 앞서 연임이 결정된 윤대근 회장, 임한석 지도자협의회 회장, 임미숙 부녀회장을 비롯해 김영제 직장협의회장이 올해 신규 선출되면서 새마을회를 이끌어갈게 됐다.

윤 회장은 지난 2019년 8월 임시총회에서 지부회장으로 선출된 후 생명살림운동, 평화나눔운동, 공경문화운동을 추진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지난 9일 추대 선출돼 임기를 이어가게 됐다.

새마을운동을 이끌어 온 임한석 지도자협의회장과 임미숙 부녀회장도 지난 달 27일 대의원 전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연임이 결정됐다.

새마을회는 직장새마을지도자 16명을 대상으로 직장협의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김영제 세종NK병원 이사장을 초대 직장협의회장으로 선출했다.

세종NK병원은 지난해 2월 5일 상호협력 목적으로 새마을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새마을회와 세종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대상 긴급구호물품 지원사업을 함께 전개한 바 있다.

윤 회장은 “새롭게 시작하는 임기 3년 간 새마을현장 지도자와 함께

지역사회 발전과 생명살림국민운동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재은기자



실험실 기술, 창업의 문을 두드리다

실험실창업 페스티벌 'LAB Start-up 20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실험실창업 페스티벌 'LAB Start-up 2021'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주관하는 이 행사는, 실험실창업팀, 국내·외 유명 창업가, VC, 액셀러레이터 등이 참석해 지난 1년간 과기정통부 대학창업지원 사업을 통해 창업에 도전한 학생들의 창업성과를 공유하고 대학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이다.

이번 행사는 '실험실 기술, 창업의 문을 두드리다'라는 주제로 국민 모두가 어디서나 쉽게 다양한 실험실 창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모든 콘텐츠가 영상으로 제공되며 행사기간 동안 실험실창업 성과전시와 모의투자, 창업팀 비즈니스 모델 매칭과 경영대회, 국내외 창업가 명사 강연·대답 등을 매일 새롭게 만나볼 수 있다.

이번 행사는 국민 투자자 성장사다리 글로벌 시선 등 3개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국민 투자자'에서는 '대국민 고객택식'을 주제로 일반국민이 잠재고객이 되어 창업아이템을 평가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야나두 투자자'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99개 실험실창업 성과를 온라인 플랫폼에 전시하고 이를 관람한 일반 국민들이 모의 크라우드 펀딩방식으로 가상캐시를 투자해 투자금액 순으로 우수팀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시장에서 성공가능성이 높은 원형을 발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이다.

17, 18 양일간은 '창업팀-투자자간 쌍방향 네트워크'를 주제로 다양한 경영프로그램을 개최하며 창업기술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한다.

2.17 예정된 '시니어 Biz-up'은 8개 선배창업팀이 VC 앞에서 사업아이템을 발표토록 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2.18에는 카카오펀더스 등 국내 투자전문기관의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IR경영무대인 '랩스타트업 배틀'을 개최해 우수 창업팀을 선발한다.

18일에는 대학 창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 창업가 선배의 성공노하우를 공유하고 예비창업자들의 사기를 북돋운다.

먼저, 국내 유망 실험실창업가가 참여하는 '스타트업Live'에서는 '퀀타메트릭스의 권성훈 대표이사'와 '고바이오랩의 고희영 대표이사'가 실험실창업 경험과 투자유치 노하우, 예비 창업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등을 전한다.

이어지는, '스타트업 Talk'에서는 과기정통부 정병선 제1차관과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 중인 창업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여, 창업의 성공과 실패 경험을 토대로 대학창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환영사에서 "대학 창업의 활성화는 청년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키우는 돌파구"고 강조하면서 "창업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이 있는 대학의 청년들이 누구나, 실패의 부담 없이, 창업을 경험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의 시작부터 성공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윤기자

여수시, 공공배달앱 '씽씽여수' 가맹점 모집

첫 주문 시 3천 원 할인 이벤트, 2% 저렴한 주문수수료 등 가맹점 지원

여수시가 지역 소상공인들의 주문 배달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는 공공배달앱 '씽씽여수' 3월 출시를 앞두고 가맹점 모집에 나섰다.

공공배달앱 '씽씽여수' 가맹점에게는 첫 주문 시 3천 원 할인 이벤트 비용을 지원하고 주문수수료가 주문금액의 2%로 저렴하다.

특히 여수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6~10% 할인 판매하는 지류형·카드형 여수사랑상품권으로도 결제가 가능하고 가맹비, 광고비 등 추가비용은 일체 없다.

주문수수료 2% 중 0.1%는 모객을 위한 프로모션에 사용하고 시민들의 공공배달앱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펼칠 예정이다.

가맹점 모집은 (취안나플래닛의 홍보마케터가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가맹점 관련 문의사항 및 가맹신청은 (취안나플래닛 콜센터로 하면 된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공공배달앱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가맹점 확보와 시민들의 이용이 필수적이다"며



"소상공인에게 주문수수료 부담이 적고 사용자에게는 여수사랑상품권 할인 가격으로 주문할 수 있어 좋은 공공배

달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사업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남철기자

중구, 문화예술 청년 창업 참여자 모집

빈 점포 활용해 공간제공, 문화예술 및 요식문화 분야 창업 가능

중구가 문화예술분야 청년창업을 통한 지역문화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청년 공동 문화창업 "창업의 민족" 참여자를 모집한다.

창업의 민족은 청년층의 성공적인 창업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빈 점포, 유휴 공간 등 쇠락한 장소에 창업 공간을 만들어 제공해 열악한 문화예술전공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지역정착을 유도하고자 시작했다.

지난해 23명의 청년이 참여, 10개 팀을 구성해 아트상품샵, 남산막걸리개발, 디자인스튜디오 등 다양한 창업모델을 발굴했다.

을지로 필동, 황학동 등 도심 일대에 공간을 조성하고 각 팀별 사업자 등록을 돕고 홍보하는 등 창업 기반 지원에 힘썼다.

사업에 참여한 창업팀은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사업과 협업하는 활동을 확대했고 구청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청년창업팀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역할에 대해 함께 모색했다.

올해는 3월 중 사업 참여자를 선정해 세무, 노무, 경영, 마케팅 등 창업 기본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 등 창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창업공간 및



장비, 자금 등 1인당 월 최대 125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모집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9명이며 선발 후에는 1개월 내 서울시로 전입해야 한다.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장애인, 세대주 및 장기실업자 등은 우선 선발한다.

분야는 문화예술에 관련되거나 요리와 문화가 결합된 창업으로 업종 및 업태에 관한 세부 제한조건은 없어 자유롭게 신청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면 오는 19일까지 사업 참여신청서 창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창업에 실패하거나 도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문화예술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다양한 실험과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중구에 창업거점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강성원기자

하남시,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 선정. 사업비 1억 1천만원 확보

사회적경제 친화도시 구축사업을 통해 사회적기업 온라인 판로개척 등 추진

하남시가 경기도에서 공모한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에 선정돼 도내 세 번째로 많은 1억 1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역특화사업은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하남시를 포함한 25개 시·군이 선정됐다.

사업비는 900만원에서 최대 1억 40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선정된 시·군은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하남시는 '사회적경제 친화도시 구축 2차 사업'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온라인 판로를 촉진하는 판로 개척 지원과 하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5개년 계획 연구용역 등을 추진할 예정

이다. 한편 시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2019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립, 창업교육 등을 지원하며 지역공동체 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에는 교육 수요 3개 팀이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됐으며 현재 사회적기업 수도 2019년 당시 6개소에서 21개소로 크게 늘면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속도를 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와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에 적극 참여해 사업비를 확보하고 사회적기업 창업부터 성장까지 체계적인 교육과 컨설팅, 판로개척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영근기자



달라진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올해 3,400여명 지급... '조기 취·창업 성공금' 신설

월 30만원씩 3개월 간, 총 90만원의 지원금 지급

경기도는 도내 미취업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을 지난해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기존의 재취업 지원방식에 더해 직접적인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 대상은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만 35~59세 여성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의 미취업자이며 선정 인원은 3,400명 내외이다.

다만,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 참여자는 사업선정 대상 제외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면접경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학원 교습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취업지원금 총 90만원을 지원받는다.

각 시·군 지역화폐로 3개월 동안 30만원씩 나눠 받게 된다.

이 밖에도 취업역량 진단 전담상담사 매칭 취업컨설팅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조기 취·창업 성공금'을 신설했다.

지원금 지급 기간내 취·창업에 성공한 구직자에게는 취업지원금 지급은 중단되지만, 취·창업 후 일정기간 고용·사업 유지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



되면, 30만원 상당의 조기 취·창업 성공금을 별도 지급할 예정이다.

취업지원금 신청 등 모집은 올해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2차례 나눠 진행하며 1차 모집은 오는 4월부터 온라인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최정근기자

"한번 인정으로 세계 어디에서나 통용"

국내 시험성적서의 국제 효력 시수

국내 공인시험인증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의 국제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평가가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인정기구가 국제인정기구와 체결한 상호인정협정을 유지하기 위한 정기 국제평가를 15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국내 964개 공인기관에서는 중간소음 시험성적서 배터리 안전성 시험성적서 방염마스크 시험성적서 등 연간 240만건에 달하는 공인시험성적서를 발행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공인 시험성적서의 국제적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인정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KOLAS 공인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가 수출국에서 추가 또는 중복 시험 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국제인정기구와 2000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했다.

그 결과, KOLAS 공인성적서는 104개국에서 국제교역의 패스포트로 통용되며 중복시험·인증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현지 시험기관 이용에 따른 기술유통 가능성

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무역기술장벽 극복의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

이번 국제평가는 상호인정협정을 유지하기 위해 4년 주기로 실시하는 정기 평가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원격평가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국표원이 운영하는 KOLAS 사무국 조직과 인력, 운영 절차 등의 품질시스템, 국내 공인기관에 대한 인정 평가능력 등이 주요 평가 대상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시험, 교정, 메타데이터 대상으로 원격 현장평가도 실시한다.

특히 국제인정기구가 공인기관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기준을 강화하고 각국 공인기관이 새로운 국제기준에 맞춰 운영체계를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KOLAS의 공평성과 전문성 확보 여부를 집중 평가하고 공인시험기관 운영체계 전환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세계 시장에서 국내 공인기관의 신뢰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한번 인정으로 세계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한국인정기구'의 위상과 가치를 높일 수 있고

록 최선을 다해 국제평가에 임하겠다"며 "친환경, 에너지 등 그린뉴딜 분야와 진단, 바이오 등 신

산업 분야의 해외 수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내 공인기관 인정과 국제상호인정협정 분야를 확대하는 등 국제 인정체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성윤기자



뮤지컬도 앨범처럼..디스크→USB로 출시

뮤지컬 '호프(HOPE) : 읽히지 않은 책과 읽히지 않은 인생'의 DVD가 출시된다.

제작사 알앤디웍스는 오는 21일 두산아트센터 연강홀에서 막을 내리는 '호프' 공연 실황 DVD를 내달 초 선보인다. 이번 시즌 공연에 출연한 배우들이 모두 참여해 총 3개 페어로 구성됐다. 무관중으로 진행된 녹화분이 담겼다.

이번 시즌은 '뮤지컬 여제' 김선영과 일본 극단 시키 출신 김지현이 타 이틀을 맡아 주목 받았다.

특이한 점은 디스크가 아닌 이동식저장장치(USB) 형태로 출시된다는 것이다. 총 3개로 제공되는 USB에는 풀(Full) HD로 촬영한 페어별 영상이 수록됐다. 미공개 공연 사진을 포함한 44쪽 분량의 북클릿이 동봉된다.

지드래곤 솔로 앨범 '권지용'을 비롯 이미 대중음악 업계에서는 음악, 영상 등이 USB 형태로 출시되는 것이 흔하다. 일부 뮤지션들은 카드 등을 사용해 음악 애플리케이션을 실행, 음원 등을 내려 받는 '키노 앨범' 등을 발매하기도 했다.

반면 뮤지컬업계에선 DVD를 출시할 때 고전적인 디스크를 고집해왔다. 하지만 최근 가정에는 DVD 플레이어 보유하고 있는 가정은 드물다. 이에 따라 DVD를 구입한 뮤지컬 관객들 사이에서는 DVD에 담겨 있는 비디오 파일 등을 PC 하드디스크로 복사하는 작업인 '리핑'이 유행했다.

뮤지컬 실황, 집에서 TV로...극장 중계도 활발 코로나19 시대에 뮤지컬을 랜선으로 중계해주는 모습은 낯선 풍경이 아니다. 그런데 주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미러링 기능을 통해 대형 TV로 연결해보는 식이었다.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간 관람법이 등장했다. LG유플러스는 공연제작사 에이콤, 예술의전당과 손잡고 국산 창작 뮤지컬 '명성황후'를 실시간 중계한다.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공연 중인 '명성황후'의 27일 오후 7시 30분 공연과 28일 오후 2시 공연을 IPTV·케이블TV를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이전에도 더 많은 관객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되던 극장 중계도 코로나19 시대에 맞물리면서 더 활성화되고 있다. 특정



시간대·특정 장소에 한정되지 않고, 관람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경우 따라 쾌적한 관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공연예술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과 '올해의 레퍼토리' 공연을 '아르코 라이브'를 통해 CGV에서 소개한다. 지난 11일 '시데레우스'를 상영하기 시작했고, 내달에는 '호프'도 상영한다.

서울예술단은 오는 24일 CGV 전국 40개 상영관에서 대표 창작 가무극 '잃어버린 얼굴 1895'를 공연할 예정이다. 서울예술단은 이와 함께 온라인 웹뮤지컬 상영도 병행한다. '청년예술가 웹뮤지컬 창작콘텐츠 공모' 선정 작품 10개를 15일부터 21일까지 네이버TV 온라인 플랫폼(https://campaign.naver.com/pr/webmusical)을 통해 공개한다.

최근 콘텐츠에 집중하는 시간이 짧은 MZ세대를 겨냥한 숏폼 콘텐츠의 하나로 '웹뮤지컬'도 부상하고 있다. 앞서 뮤지컬 '몬테크리스토' '팬텀' 등을 제작한 EMK뮤지컬컴퍼니의 자회사 EMK엔터테인먼트에서 웹뮤지컬 '킬리파티'를 선보여 호응을 얻었다. EMK는 스트리밍 전문 플랫폼 'EMK 라이브' 론칭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속되는 플랫폼 변화와 코로나19 시대에 맞물려 앞으로도 뮤지컬 소비 채널과 형태는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요즘 같은 때에 극장을 찾지 않아도 넷플릭스처럼 OTT에 불거리가 넘치는 시대에, 공연의 경쟁 상대는 모든 콘텐츠다. 한편에서 뮤지컬의 가상현실(VR) 작업화가 이뤄지는 이유다.

대학로 중견 제작사 관계자는 "충성도 높은 뮤지컬 마니아들은 현장을 중시해서 방역에도 열심히 동참한다"면서 "하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 뮤지컬을 보지 않는 일반 관객까지 끌어들이기는 힘들다. 다양한 채널로 뮤지컬에 대한 진입길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런데 당분간 대학로 변화의 바람은 뮤지컬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극 관계자들은 '라이브 공연'을 고집하기 때문이다.

대학로에서 소극장을 20년간 운영해온 극장 대표는 "뮤지컬은 배우들의 동선이 다양하고, 화려한 조명이 있어 영상에 담아도 무리가 없지만, 배우가 중심인 소극장 연극은 영상화를 하면 밋밋해진다. 뮤지컬에 비해 스타들이 적어 연극 영상을 소비하는 관객도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대전시립미술관, 현대미술 특별전 '상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 개최

3월 2일부터, 대전시립미술관 1-4전시실에서 관람

대전시립미술관 2021 현대미술기획전 '상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오는 3월 2일부터 5월 9일까지 대전시립미술관 1-4전시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삶을 살아가며 겪는 유·무형의 소멸과 상실에 관한 이야기이다.

우리는 작게는 우산이나 지갑을 잃어버리고 가까웠던 연인과 가족을 잃고 익숙했던 장소와 점유했던 풍경을 잃기도 한다.

개인적인 사유를 담은 일기의 형식인 '애도일기', '사물일기', '외면일기', '전쟁일기'로 색채를 나누어 저마다 풀어내는 상실, 애도, 기억에 대한 보편적인 이야기를 펼친다.

선승해 대전시립미술관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가 상실한 것을 예술로 승화해 인간성의 회복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번 전시는 정신의학과 예술을 결합한 공감미술로 상실을 예술로 승화시켜 도달한 새로운 삶에 작은 희망의 불빛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섹션1 '애도일기'는 롤랑 바르트가 어머니의 죽음을 애도한 책 제목에서 따왔다.

소멸되가는 타자의 세계에 속에서 감각하고자 애쓰는 강철규, 김두진, 서민정, 크리스 버돈크의 작업을 살펴본다.

섹션 2 '사물일기'는 안규철의 '그 남자의 가방'의 '버리고와 잃어버리기'에서 영감을 받았다.

일상적인 사물을 재해석한 신미경, 안규철의 작업을 통해 사물과 상실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섹션 3 '외면일기'는 미셸 투르니에



가 여행을 하는 동안 시간에 따라 변하는 공간들이나 주변 이웃들의 소중한 일상 등을 관찰한 것을 기록한 책 제목에서 따왔다.

우리가 점유하는 시공간에 대한 기억과 소멸에 대해 고정원, 백요섭, 양정욱, 정영주의 기록을 살펴본다.

섹션 4 '전쟁일기'는 비트겐슈타인이 1차세계대전 참전한 청년으로서 기록한 세 권의 일기장을 묶은 것이다.

'논리철학논고'로 이어진 이 책은 세계적인 철학자인 비트겐슈타인과 이등병 신분으로 참전한 청년 비트겐슈타인 사이의 간극을 다루고 있

다. 각자의 삶이라는 전쟁 속 정체성에 대해 박이소, 정연두, 조동환+조해준의 다짐과 의지를 살펴본다.

전시를 기획한 홍예슬 학예연구사는 "참여 작가들이 저마다 풀어내는 상실, 애도, 기억에 대한 보편적인 이야기를 통해 관람객들의 일상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전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감염 예방을 위해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대전광역시 OK예약서비스에서 예약 가능하다.

고정화/기자

'아동 성범죄 실행' 한예찬..출판사 "책 전량 회수"

'서연이 시리즈' 등 어린이용 판타지 만화를 주로 썼던 동화작가 한예찬(53)씨가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행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책을 낸 출판사가 한씨의 작품을 서점에서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15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한씨는 자신이 직접 가르쳐 온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년 6개월간의 긴 재판을 받아왔다. 아동의 의사에 따라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했을 뿐이라는 한씨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27건의 범죄사실에도 위력에 의한 추행을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지난해 12월 1심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교사와 아동 사이의 심리적, 정서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추행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적으로 순응하기 쉬운 초등학생을 상대로 뽀뽀나 입에 허를 넣고 포옹하는 것에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보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출판사 "반쯤 원할 시 모두 반품하기로 했다"

출판사 가문비어린이는 15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한예찬 작가의 성추행 실행 선고 관련하여 가문비어린이 조직사상을 알려드린다"며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등》 가문비어린이에서 올린 도서는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교보 등 오프라인 서점도 대대 노출을 하지 않고 반품을 원할 시 모두 반품하기로 했다"면서 "오픈마켓 등에 올라와 있는 도서는 불특정 다수의 도서판매자들이 올린 것이며 가문비어린이와는 관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씨의 책들이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날 알려지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초등학생용 판타지 역사물인 '서연이 시리즈'를 비롯해 한씨가 쓴 동화 일부가 성인과 미성년자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 더욱 문제적이라는 지적도 나왔

다. 한씨는 이외에도 10세~11세 여자 아이들을 위한 성교육 책을 쓰기도 했다. 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만약 한씨의 유죄가 유지된다면 재판부 명령에 따라 그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은 가능하다. 하지만 한씨가 쓴 어린이 대상 출판물을 막기 위한 마땅한 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순희/기자



울산 큰줄다리기 마두희,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 추가 등재 도전

중구문화원 "역사·문화적 가치 커"..시 무형문화재 등록 우선 진행



울산 전통 큰줄다리기 '마두희'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도전한다.

울산중구문화원과 울산마두희보존회는 마두희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추가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마두희는 조선 시대 울산 지역에서 시작돼 1900년대 초까지 열렸던 전통 큰줄다리기다.

일제가 주민이 모이는 것을 통제하면서 명맥이 끊겼다. 그러나 울산 중구와 중구문화원이 2012년부터 재현하는 축제를 열었고, 매년 수십만 명이 참가하고 있다.

중구문화원은 마두희가 역사·문화적 가치가 큰 것으로 보고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한다.

앞서 한국 '줄다리기'는 2015년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지역 줄다리

기와 함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다.

당시 영산줄다리기(국가 지정 제26호), 가지시줄다리기(국가 지정 제75호) 등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 2개와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 4개가 포함됐다.

중구문화원은 마두희가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추가 등재되면 세계적인 관련 세미나를 유치하고 지구촌에 마두희를 알리는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성연 중구문화원 사무국장은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도 줄다리기가 등재 움직임이 있어 이와 함께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본다"며 "일단 시 무형문화재 등재가 우선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순희/기자

를 심화하고 다양화한 뒤 시 문화재심의위원회에 등재 신청할 계획이다.

이후 전문가 집단 자문을 거쳐 국가 무형문화재 신청 필요성을 판단하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추가 등재를 신청한다.

중구문화원은 마두희가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추가 등재되면 세계적인 관련 세미나를 유치하고 지구촌에 마두희를 알리는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성연 중구문화원 사무국장은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도 줄다리기가 등재 움직임이 있어 이와 함께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본다"며 "일단 시 무형문화재 등재가 우선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 장관 표창장·상장, 한지로 제작한다

한지업계 어려움 호소에 공공수요 창출 차원 조치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부터 장관 명의의 표창장과 상장을 전통한지로 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통한지산업 진흥방안의 일환이다. 전통한지는 보존성과 내구성 등 품질이 뛰어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 부족으로 업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업계, 전문가 등은 지난해 10월 한지정책협의체를 열었고 한지업계는 최소한의 공공 수요 창출 차원에서 문체부장관 명의 표창장과 상장에 전통한지를 사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체부는 "장관 포상 업무지침"을 개정해 올해부터 모든 장관 명의의 표창장과 상장을 전통한지로 제작한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훈·포장 증서를, 전주시와 가평군에서는 표

창장과 상장을 전통한지로 사용하고 있다.

문체부는 전통한지 사용이 일부 기관에서 공공 부문 전체로 한층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방범록, 상장 등 공공 소비물품도 전통한지로 제작해 대사와 문화원에 보급하고 지역 한지 축제, 체험프로그램 등 지역한지 수요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 이진식 문화정책관은 "공공 부문에서 전통한지의 쓰임새가 표창장, 상장 등으로 확산되기를 바라며 정부, 지자체, 전문가 및 관련 단체 등과 힘을 합쳐 전통한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지가 대표 문화자원이자 전통문화산업으로 활성화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2017년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은 일본의 화지(和紙), 중국의 선지(宣紙)를 제치고 '기록 유물 복원용 종이'로 우리 전통한지를 채택했다. 이탈리아 국립기록유산 보존복원 중앙연구소는 2016년부터 작년 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전통한지 5종에 대해 문화재 보수·복원 용지로 적합하다고 인증한 바 있다.

최재은/기자



2021 함양산삼엑스포 제2행사장 대봉캠핑랜드 종합점검 실시

엑스포 성공의 '베이스캠프' 역할 기대, 운영 역량 강화에 행정력 집중

2021 함양산삼엑스포 제2행사장인 함양 대봉산휴양밸리 내 숙박시설인 대봉캠핑랜드를 중심으로 시설물 종합점검이 실시됐다.

군에 따르면 15일 오후 휴양밸리와 시설운영담당 직원으로 구성된 점검팀이 대봉캠핑랜드 단체숙박시설인 사나래관을 시작으로 불로초동지를 포함해 숲속의 집 등 35개소에 대해 전기안전테스트 등 안전점검과 조망시설 조도테스트 등 운영점검을 병행 실시했다고 전했다.

대봉캠핑랜드는 2021 함양산삼엑스포 제2행사장인 대봉산휴양밸리 시설 지구 중 하나로 주력시설인 대봉스카이랜드가 모노레일·자라인 중심의 레포츠체험시설이라면 캠핑랜드는 가족단위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힐링형 숙박시설이다.

지난해 7월 15일 문을 연 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설을 폐쇄하기까지 약 한달여간 운영을 했는데 지리산 천왕봉을 비롯한 영봉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수려한 경관에 당시 최신 시설 대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코로나 사태로 운영을 중단한 후 대봉캠핑랜드는 더욱 더 알찬 모습으로 손님을 맞이 위해 그간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시설과 경관조명시설을 비롯해 각종 쉼터와 데크 보강 등 다양한 시설물을 대거 추가했으며 각종 재난 대비 안전매뉴얼을 정비하고 이에 맞는 자체 대피 훈련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숙박객 안전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추후 각종 체험프로그램 등 색다른 즐길거리를 개발해

숙박객들에게 제공하는 등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진일보한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코로나19 추이를 더 지켜봐야겠지만 함양군은 새싹이 트는 오는 4월이 시설물 재개장의 적기라고 자체 판단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오는 9월 10일로 예정된 함양산삼엑스포가 개최되면 제1행사장인 상림공원과 제2행사장 중 하나인 대봉스카이랜드 방문객들이 숙박을 위해 대거 이곳 대봉캠핑랜드로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봉캠핑랜드는 2021 엑스포 성공 개최의 키가 되는 베이스캠프 역할을 하는 곳인 만큼 안전하고 세심한 운영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시키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강원호/기자

성남시, 현장 근로자 작업장 53곳 점검 "산업재해 예방"

성남시는 오는 2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 조직 내 현장 근로자 639명이 일하는 53곳 작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상태 점검에 나선다.

청소, 용접, 토목, 제조 등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없애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해당 작업장은 여수동 양묘장, 성남동 성남시민농원, 수진동 누수복구반 작업장, 갈현동 영생관리사업소 내 화장장 등이다.

점검 내용은 화장장 냉각시스

템과 송풍기 정상 작동 여부, 시설물 내 소화기 비치와 통로 확보 여부, 청사 내 사다리 작업 때 안전 난간대 설치 여부, 작업장 안팎의 전선 피복 상태 등이다.

현장 근로자의 방진 마스크·안전모·안전화 등 3중 안전보호구 착용 여부도 점검대상이다.

작업장별 안전책임관리자 지정 운영 실태와 작업 개시 전 안전교육 시행 여부도 점검한다.

사용 빈도가 낮은 유해화학물질 관리 상태 등 잠재된 위험요인도 확인 점검해 산업재해 예방에 주

력한다.

점검 과정에서 미비 사항이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개선하고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성남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시 소속 현장 근로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일하도록 자체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민간 사업장에도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욱/기자

당진시 "어촌뉴딜사업" 성공 위한 추진계획 중간점검

당진시는 16일 시청 목민홀에서 김홍장시장과 관계 공무원, 수탁사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촌뉴딜사업 추진계획 보고회를 가졌다.

어촌뉴딜사업이란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낙후된 어촌·어항을 대상으로 접근성 및 정주여건 개선, 수산·관광 등 산어발전, 주민역량 강화 등을 통해 사회, 문화, 경제, 환경적으로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보고회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2019년 난지도 권역 어촌뉴딜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 왜목항과 한진포구 2021년 용무치항 어촌뉴딜 세부사업 순으로 진행됐다.

난지도 권역 어촌뉴딜사업은 총 사업비 126억원으로 2018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 2019년에는 어촌뉴딜300 8대 선도사업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2022년 3월 준공예정으로 대난지도, 소난지도, 도비도항이 사업대상이다.

사업내용으로는 공통사업-선착

장 확장 및 부잔교 설치, 소난지섬 선착장 여객편의시설 특화사업-대난지섬 어업센터, 체험장 가는 길, 정주환경 개선 소프트웨어사업-지역역량 강화사업, 지역협의체 운영, 사무장 운영 등이 계획되어 있다.

왜목항 어촌뉴딜사업은 총 사업비 80억원으로 2019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이다.

사업내용은 공통사업-선착장 증고 및 보수, 요트머어링, 부잔교 설치 특화사업-마을커뮤니티센터, 왜목해변 경관복원, 가로경관 개선, 관광편의증대, 마을안내사인 설치 소프트웨어 사업-지역역량 강화사업, 지역협의체 운영, 사무장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한진포구 어촌뉴딜사업은 총 사업비 77억원으로 2019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선정돼 2022년 12월 준공이 예정이다.

사업내용은 공통사업-호안정비, 선착장 정비, 한진복합센터 건립

특화사업-큰나무 광장, 당집연결로 소프트웨어 사업-지역역량 강화사업, 지역협의체 운영, 사무장 운영 등으로 계획되어 있다.

용무치항 어촌뉴딜사업은 총 사업비 100억원으로 작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2023년 12월 준공예정이다.

사업내용은 공통사업-물양장 신설, 선착장 확장, 슬로프 설치, 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 특화사업-주민편의시설, 호안정비 소프트웨어 사업-지역역량 강화사업, 지역협의체 운영, 사무장 운영 등으로 계획되어 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어촌뉴딜사업은 정주여건이 열악한 어촌의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를 중심으로 당진시에 특성화 된 어촌개발이 목표"며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단계별 추진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해 누구나 찾고 싶은 미래의 당진시 어촌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괴산군 안전보안관 2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추진

충북 괴산군은 16일 제284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괴산 산막이 시장 일대에서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한 전열기기 점검 및 화재 행동요령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군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마련된 이날 캠페인에서는 괴산군청 안전건설과 공무원과 안전보안관 1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겨울철 건조해진 날씨로 인해 화재발생 가능성이 높아 집에 다라 화재예방 안전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추진됐다.

안전보안관들은 산막이 시장을 중심으로 겨울철 화재 행동요령과 전열기기 점검 체크리스트 리플릿, 손소독용 물티슈를 나눠주며 각종 안전수칙을 적극 홍보했다.

괴산군 관계자는 "건조한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전열기기를 점검하고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을 숙지해주시길 바란다"며 "또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만큼 개인 방역수칙 또한 철저히 준수해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만식/기자

평창군, 어린이놀이시설 53개소 지도·점검 실시

평창군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월 초부터 3월 중순까지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53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은 안전점검표를 가지고 관리주체 자체 점검을 1차적으로 한 후, 자체점검 결과를 가지고 표본대상을 선정해 담당공무원, 민간자문단, 평창군 안

전보안관과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준수 여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선임 및 안전교육 이수 여부 월별 안전점검 실시 및 기록 보관여부 정기시설검사 실시 및 보존 기입여부 등이다.

군은 점검 결과 방역관리실태 및 안전관리실태가 미흡한 시설에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미흡한

사항이 다수 발견된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이용금지 등을 통해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진행할 방침이다.

한완기 평창군수는 "이번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이천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집중 관리

이천시 상하수도사업소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로 인한 하천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관리에 대한 관리능력 향상을 유도하고자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시설별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50㎡/일 미만, 50㎡/일 이상으로 구분해서 집중 관리할 예정으로먼저 정화조 관리를 위한 정화조 내부정소 안내문을 2020년 12월부터 4회에 걸쳐 2,700여 곳에 발송했다.

정화조 정소를 적기에 하지 않으면 처리효율이 떨어져 악취·해충이 발생될 뿐만 아니라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정소를 실시해야 하며 정소를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체계적인 관리

를 위해 전문성이 부족한 50㎡/일 미만의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오는 3월부터는 실태조사와 기술지원을 하는 지역전문관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관리 시설 중 방류수수질기준 초과가 우려되는 중점관리대상 업소는 상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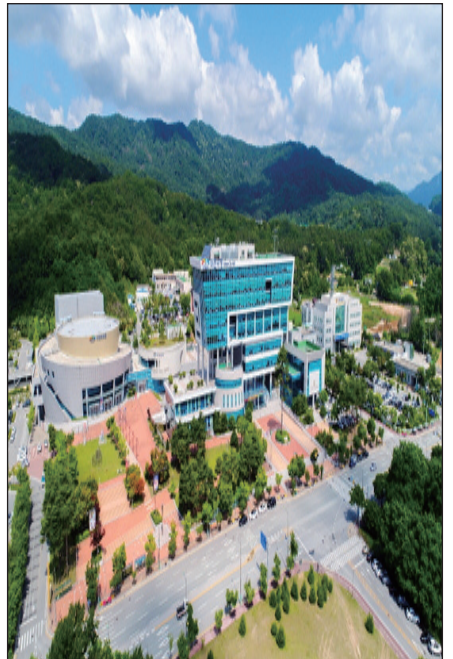
또한 50㎡/일 이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처리시설 가동여부, 방류수수질 정기검사 실시여부, 방류수 수질 적정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시민들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정기적인 점검 및 연 1회 이상 정화조 청

소를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성욱/기자



구례군 2021년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실시

구례군은 해빙이 시작되는 이달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규모 위험 시설 200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규모 공공시설은 다른 법에 따라 관리되지 않은 연장 100m 미만의 소교량, 폭 1m 이상이고 연장이 50m 이상인 세전, 취입보, 낙차공, 농로 마을 진입로 등 6개 시설물을 말한다.

총괄반장인 양동길 건설과장을 중

심으로 건설과 및 각 읍·면사무소 직원들이 시설물 일체조사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시설에 대한 위험도 평가,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지의 절차를 거쳐 시설정비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구조물 노후도, 파손 상태, 철근노출 및 부식, 균열, 지반침하, 세굴, 안전시설 상태 등이며 안전점검 중 이상 징후가 발견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김순호 군수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이 위험요인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이고 책임성 있는 점검이 되도록 하겠다"며 "군민들도 주변의 시설물을 관심 있게 살피고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남출/기자




역사가 살아 숨쉬는 관광·문화도시

그 품격을 더욱 높혀 나가겠습니다



'꼭안아보자' 이영하x선우는속재결합기대감높이며 종영 '우이훈'

이영하와 선우는속이 재결합 가능성 높은 가운데 '우리 이혼했어요' 시즌1이 종영됐다.

2월 15일 방송된 TV CHOSUN '우리 이혼했어요(이하 우이훈)'에서는 이하늘-박유선, 이영하-선우는속, 박세혁-김유민, 박재훈-박혜영의 마지막 이야기가 그려졌다.

이날 박유선과 함께 식사를 하던 이하늘은 "주위에서 계속 다시 잘해 보라는 얘기가 많다. 너무 쉽게 얘기 하더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하늘은 "나는 '꼭 그래야만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 이번법적 사고가 아니라 '이' 이 이혼이고 '1'이라고 한다면 그 중간인 '0.5'에 있는 거다. 나는 지금 이 감정이 좋다"고 말했다. 이에 박유선은 "이혼 했다고 보면 안돼? 불법이야? 남의 시선 때문에 안 보려고 했다.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누가 같이 산데? 그냥 보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후 두 사람은 이하늘의 남동생인 이현배와 만남을 가졌다. 박유선은 "예전에 (동거할 때) 도련님이 옆집에 살았다"고 회상하자 이현배는 "두 사람 싸우면 형이 행거 끌고 우리 집에 찾아왔다.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했다. 한 세 번 정도 있는 것 같다"고 폭로했다. 이어 "다시는 (형수님을)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름대로 나 혼자 정리를 했다"며 "방송을 안 했으면 했다. 안 먹어도 될 욕을 먹을까봐 걱정했다"고 털어놨다.

이하늘은 집으로 돌아가기 전 박유선에 "어떡하나. 이 방송 끝나면 한동안 사람들이 네 얘기를 계속 물어볼 것 같아. 낚시하러 가서도 물어봐. 그 동네 사람들도 물어본다. 각시 어디 있냐고"라며 "내 우렁각시 해줘"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박유선



이 "방송 전과 후에 달라진 게 있다"고 묻자 이하늘은 "없다"고 말했다. 박유선은 "나는 하나 있다. 방송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진지한 얘기를 안 했을 것 같다"고 털어놨다. 이하늘은 "나도 방송 출연하면서 오히려 네 생각을 더 많이 했다.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보고싶더라"며 "너한테 고마운 게 많다"고 애뜻한 마음을 드러냈다.

이영하와 선우는속은 이혼 후 첫 재회 장소였던 청평에서 만났다. 이영하는 선우는속에게 "존중, 배려, 이해가 부족했어"라고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재혼하라는 연락이 많이 온다. '형수님 표정이 많이 환해지셨다. 재혼하십시오'라고 한다"며 "우리가 4개월

정도 활영을 하면서 만났는데 선우는속 씨는 재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라는 돌직구 질문

을 던졌다. 선우는속은 "첫 만남 때는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걸 인지했다. 사람이 안 바뀐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은 당신이 편안하고 오해가 다 없어졌다. 내가 얼마나 당신을 좋아했으면 결혼했겠나. 인생의 다인 것 같았다"며 "(재결합에 대해) 조금 더 심도깊게 생각해볼게"라고 긍정적인 말로 이영하를 웃게 했다.

선우는속은 과거 연애할 때를 회상하며 "나는 자기와 데이트할 때의 그 길이 아직도 생각한다. 그 콩닥콩닥했던 마음"이라며 "그때처럼 나를 여자라고 보고 안아줄 수 있나. 나는 그렇게 안겨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이영하는 "그 감정은 다 있다"고 답했다.

이후 이영하는 "앞으로는 좋게, 더 아끼면서 살자"고 말했다고 선우는속은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잘해주

모모랜드 나윤, 웹드 '1시 11분 너에게 가는 시간' 출연.. '차세대 연기돌' 등극

걸그룹 모모랜드(MOMOLAND)의 멤버 나윤이 웹드라마 '1시 11분 너에게 가는 시간'에 출연한다.

16일 소속사 MLD엔터테인먼트 측은 "나윤이 웹드라마 '1시 11분 너에게 가는 시간'에 출연을 확정 짓고 최근 대본리딩을 마쳤다"고 밝혔다.

웹드라마 '1시 11분 너에게 가는 시간'은 첫사랑을 잊지 못해 시계 속 1시 11분이란 숫자만 보면 그대로 멈춰버리는 남녀가 과거를 회상하며 음악으로 재회하는 이야기를 그려낸 작품이다.

나윤은 극 중에서 교내 협학 동아리 멤버 중 실질적 리더인 '이지

윤'역을 맡아 송여울(에이프릴 채경분)의 숨은 연애 조력자로 활약할 예정이다.

앞서 나윤은 지난해 방영한 네이버V 오리지널 웹드라마 '어쨌든 기념일'에서 여주인공 '차새이' 역을 맡아 섬세한 표정 연기와 감정 표현으로 대중에게 확실한 눈도장을 찍은 바 있다.

한편 첫사랑의 설렘과 애뜻한 스토리에 몰입도를 극대화하는 음악으로 멈춰버리는 남녀가 과거를 회상하며 음악으로 재회하는 이야기를 그려낸 작품이다.

나윤은 극 중에서 교내 협학 동아리 멤버 중 실질적 리더인 '이지

최만식기자



“조태관, KBS 새 월화드라마 ‘달이 뜨는 강’ 첫 등장 데 뷁 이후 첫 사극에서 강렬한 존재감 뽐내”

조태관, 데뷔 이후 첫 사극연기 도전 앞으로의 새로운 활약 기대

배우 조태관이 '달이 뜨는 강'에서 임팩트 있는 첫 등장으로 시청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조태관이 출연하는 KBS 2TV 새 월화드라마 '달이 뜨는 강'은 고구려가 삶의 전부였던 공주 평강과 사랑을 역사로 만든 장군 온달의 운명에 굴하지 않은 순애보를 그린 퓨전 사극 로맨스다.

극 중 조태관은 무공이 출중한 스님 '월광' 역을 맡아 절도 있고 화려한 액션신들로 지금껏 보여주지 못했던 다채로운 매력을 뽐낼 예정이다.

지난 15일 첫 방송된 '달이 뜨는 강'에서 고추가 어른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찾는 어린 평강에게 호위무장은 출가하기 전 절노부 최고의 무장이었던 스님 '월광'을 언급하며 그가 보여줄 뛰어난 무공 실력을 기대케 했다.

이에 월광은 그 겉으로 국경을 침범하던 돌궐 수장의 목을 베었느냐는 평원왕의 물음에 "그러하옵니다"고 담담하게 답하며 첫 등장을 알렸다.

이에 평원왕의 상상 속 연왕후의

부른 배를 보고 서로 아픈 시선을 마주치며 이들의 숨겨진 사연에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극하기도. 이 가운데 조태관은 덩수룩한 장발 머리를 뒤로 질끈 묶고 허름한 한복 차림으로 등장해 비주얼부터 파격적인 변신을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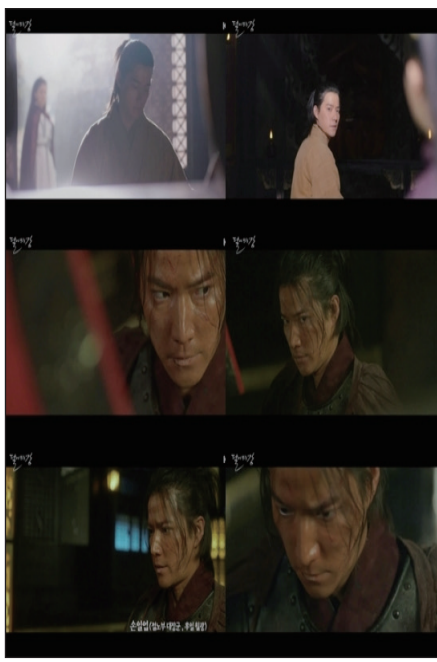
한편 왕후가 월광이 있는 '이불란사' 절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질투심이 타오르기 시작한 평원왕은 광기어린 표정으로 칼을 휘두르며 자취를 감춘 월광을 찾기 시작해 긴장감 있는 전개가 이어질 것을 예고했다.

이처럼 고구려 황실에서 펼쳐지는 치열한 권력다툼 속 웅장한 스케일과 생동감 넘치는 액션신이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가운데 조태관이 극에 어떠한 재미를 선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태관은 지난해 종영된 tvN '스타트업'에서 세계적 포털사이트 투스토의 글로벌 파트너십 디렉터이자 M&A 전문가인 '알렉스'를 연기하며 자신의 옷을 입은 듯한 자연스러운 연기로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특히 극 중 교묘 출신으로 스마트한 면모를 보여주며 짧은 출연에도 강한 인상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는 조태관이 데뷔 이후 첫 사극에 도전장을 내밀며 앞으로 그가 보여줄 새로운 활약에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다.

최재은/기자



박보영, 저소득 가정 여아 위해 3천만원 기부.. 꾸준한 선행



배우 박보영이 따뜻한 선행에 앞장서며 선한 영향력으로 훈훈함을 전했다.

16일 OSEN 취재 결과, 박보영은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를

통해 국내 저소득 가정 여자를 지원하기 위해 3000만 원을 기부했다.

전달된 기부금은 저소득 가정 여아들에게 필요한 위생용품 지원 등 건강한 성장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

다. 박보영은 꾸준한 기부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2013년부터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해 국내 아동 2명을 후원해온 후원자이며, 국내 저소득층 아이들과 지구촌 어려운 아동들을 위해 꾸준히 재능기부를 펼치고 있는 것.

특히 박보영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 사회 감염 예방 및 피해 복구를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를 통해 성금 5000만 원을 기부하기도 했으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을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2000만 원을 기부했다.

굿네이버스 측은 "저소득 가정 여아들을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주신 박보영에게 감사하다"며 "국내 여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소중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상담 치료 및 멘토링을 통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보영은 올 상반기 방송 예정인 tvN 새 드라마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에 출연한다. 박보영은 극 중 라이프스타리 웹소설 편집자 '탁동경' 역을 맡아 어떤 연기 변신을 보여줄지 기대를 모은다.

정동희/기자

첫방 '달이 뜨는 강' 1인2역 김소현→강렬 강하늘..동시간대 1위 출발

'달이 뜨는 강'이 첫 방송부터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15일 KBS 2TV 새 월화드라마 '달이 뜨는 강'이 첫 방송됐다. '달이 뜨는 강'은 고구려 설화 속 평강과 온달의 사랑 이야기를 부활시킨 퓨전 사극 로맨스로 방송 전부터 큰 기대를 모았던 드라마. 첫 방송부터 평강과 온달의 서사는 물론 웅장한 스케일의 액션, 치열한 정치 싸움 등을 화려 담으며 숨 막히는 몰입도를 선사했다.

이에 시청률도 응답했다. 2월 16일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달이 뜨는 강' 1회는 전국 기준 9.4%(2부)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달이 뜨는 강' 첫 방송은 전쟁터

의 평강(김소현 분)과 온달(지수)로 시작했다. 피 튀기는 전쟁터에서 죽을힘을 다해 싸우는 두 사람. 전쟁이 마무리된 후에도 비로소 만나게 됐지만, 이미 온달은 쓰러진 후였다. 애뜻하게 입을 맞추는 이들의 모습이 이전까지의 서사를 궁금하게 했다.

이에 드라마는 평원왕(김법래) 재위 3년으로 돌아가 왕에게 소금 전매권을 달라고 압박하는 귀족 고원표(이해영), 해지월(정인겸), 진필(차광수)을 보여줬다. 사병까지 이끌고 왕을 협박하는 귀족들을 보며 연왕후(김소현)는 순행을 떠나겠다고 결심했다. 태왕을 꿈꾸는 공주 평강(허정은)도 어머니를 따라나섰다.

연왕후가 향한 곳은 신라와 접한

국경을 지키는 순노부의 마을이었다. 제가회의의 전횡을 막기 위해 순노부의 수장인 온협(강하늘) 장군의 힘이 필요했던 것. 온협은 제가회의를 한심한 정치놀음이라 생각하며 국경 방어로 고구려에 대한 충심을 지키는 장군이었다.

이로 인해 평강과 온달(서동현)도 공주와 장군의 아들로 만났다. 훗날 태왕이 되겠다고 말하는 평강과 공주는 태왕이 될 수 없다고 말하는 온달은 첫 만남부터 티격태격했다.

연왕후가 순노부로 갔다는 걸 안 고원표는 눈엣가시 같은 연왕후와 온협을 모두 제거할 계획을 꾸렸다. 왕후의 첫사랑을 이용해 평원왕의 투기를 불러일으킨 것. 고원표는 평원왕이 평강의 출생마저 의심하게

해 연왕후를 죽일 것을 명하게 만들었다.

이에 고원표는 사병을 이끌고 순노부로 와 마을을 공격했다.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파악한 연왕후와 온협은 평강과 온달을 왕후의 첫사랑이자 고구려 최고의 장군이었던 월광 스님이 있는 이불란사로 보냈다.

이 과정에서 연왕후는 죽고, 온협은 마을 사람을 살리기 위해 역모를 자백하라는 협박을 받았다. 온달은 이불란사로 가는 지름길인 절벽으로 평강을 안내하다가 평강을 보내고 강으로 떨어졌고, 평강은 이불란사에서 투기에 미쳐 불을 지르고 사람을 베는 아버지 평원왕을 봤다. 이때 누군가 평강을 빼돌려 그의 기억을 잃게 만들었다.

8년 후, 평강은 천주방 최고의 살수 염가진(김소현)으로 살고 있었다. 최고의 실력을 가졌지만, 어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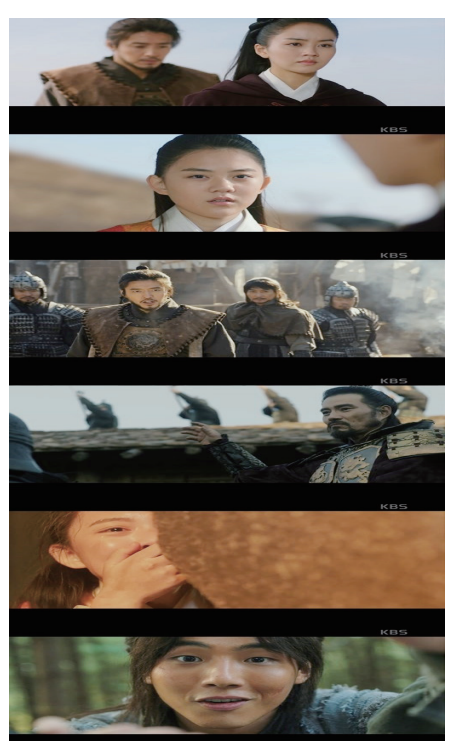
아이는 बे지 못하는 따뜻한 마음은 잃지 않았다. 살수 일에 회의를 느끼며 이를 그만두려는 염가진에게 천주방의 방주 두중서(한재영)는 마지막 임무라며 평원왕 죽일 것을 명했다.

살수로서 마지막 임무를 다하기 위해 길을 나선 염가진은 곳곳에 함정이 가득한 수상한 산길에 접어들었다. 이때 염가진은 밀림군과 싸우는 온달(지수)과 우연히 마주쳤다. 온달을 도와주고 다시 가던 길을 가려는 염가진을 온달이 다시 불러세웠다. 그렇게 8년 만에 다시 마

주하게 된 두 사람. 평강의 얼굴을 본 온달이 "나 너 알아"라고 말하며 궁금증을 폭발시켰다.

한편 KBS 2TV 월화드라마 '달이 뜨는 강' 2회는 16일 오후 9시 30분 방송된다.

전순희/기자



'슈퍼 쌍둥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학교 폭력(학폭)' 가해 사실이 드러난 쌍둥이 자매 이재영-이다영(25)에게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흥국생명 구단은 15일 오전 "사안이 엄중한 만큼 해당 선수(이재영-이다영)에 대해 무기한 출전 정지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에는 대한민배구협회가 "학교 폭력 가해자(이재영-이다영)는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에 의거해 도쿄올림픽과 2021 발리볼네이션스

리그 등 향후 모든 국제대회 국가대표 선발에서 무기한 제외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출전 정지 및 선수 선발 앞에는 '무기한'이라는 조건이 붙어있다. 징계가 종료되는 시기를 못 박지 않았다. 평생 선수로 뛰지 못할 수 있지만, 다음 시즌 코트에 복귀할 수도 있다. 징계 해제 시점에 따라 '중징계'인지 '경징계'인지 판단이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없다. 김

여일 흥국생명 단장은 "이번 시즌은 기본적으로 못 뛴다. 징계 해제는 용서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피해자가 쌍둥이 자매의 가해 사실을 10년 정도 지난 최근에 알린 건, 자신의 잘못은 인지하지 못한 채 팀 내 일부 선배와 충돌한 것을 외부에 알리는 걸 보면서 분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신이 억울하다고 느껴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이 오히려 부메랑이 돼 돌아온 것이다.

피해자가 밝힌 21가지의 피해 내용에는 폭행·폭언·감질 등이 담겨 있다. 칼을 가져와 지시·협박했고, "더럽다", "냄새난다"는 등의 폭언 및 인신공격성 발언을 했다. 이재영은 "절없었던 지난날 저지른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많은 분께 상처를 드렸다"고 했고, 이다영은 "학창 시절 같이 땀 흘리며 운동한 동료들에게 힘든 기억과 상처를 안겨 깊이 사죄드린다"고 했다.

배구 팬 그리고 물론 우리 사회가 이재영-이다영의 학교 폭력에 분노하는 데는 학폭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용납되지 않고, 정당화될 수 없어야 한다. 두 선수가 뛰어난 실력을 바탕으로 여자 배구의 인기몰이를 한 만큼 팬들의 실망감도 커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또 하나 놓쳐서 안 되는 건, 이들의 기저에 깔린 특권의식이다.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2순위로 뽑힐 만큼 학창 시절부터 뛰어난 기량을 자랑한 이재영-이다영은 우월의식을 가지고 동료들에게 군림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팀이 패하면 기합을 주고, 동료들을 마음대로 부렸다.

쌍둥이 자매는 배구 국가대표 출신 어머니로부터 뛰어난 배구 유전자 물려받았다. 모친이 경기장에 나와 자매에게 직접 코치를 했다는 피해 학부모의 폭로도 있었다. 아마 추어 시절부터 '슈퍼 쌍둥이'는 특별한 보호와 관리를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동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다.

대한민배구협회는 지난해 '2020 배구인의 밤' 행사에서 이재영-이다영의 모친에게 '장한 아버지' 상을 수여했다. 학폭 피해자와 그들의 부모는 가해자 가족이 그만큼 거대한 권력으로 보였을 것이다. 이재영-이다영의 학폭이 폭탄처럼 터진 뒤 대한민배구협회는 이상을

취소하는 절차를 공식적으로 밝을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사과문에서 스스로 밝혔듯, 이재영-이다영 자매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 그렇다고 이를 온전히 두 선수만의 잘못이라고 볼 수도 없다.

'슈퍼 쌍둥이'의 학폭은 실력이 곧 권력이며, 그 권력조차 부모의 후광을 받아 커졌다는 절망감을 피해자에게 줬다. 이재영-이다영 자매에

게는 그걸 바로잡아줄 어른이 없었던 것 같다. 성적 우수주의 속에 잘못을 꾸짖어야 할 지도자와 학교 관계자는 이들의 잘못된 행동을

모든 체했다. 흥국생명 구단 역시 스타이자 팀의 자산인 두 선수를 보호하고 감싸기에 바빴다.

피해자의 폭로가 있기 전까지, 이로 인해 여론이 악화하기 전까지 '슈퍼 쌍둥이'는 기득권에 의해 철저히 보호받았다. 그게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가 됐고, 많은 이들이 거기에 공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신임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체육 분야의 그늘 속에서 폭력이나 체벌, 성추행 문제 등 스포츠 인권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런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2019~20년 쇼트트랙과 트라이애슬론에서 성폭행과 가혹행위 사실이 알려졌고, 최근 배구계에서 프로 선수가 과거 학교 폭력을 범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빚은 데 따른 주문으로 보인다.

학폭 폭로가 가해자의 징계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일그러진 영웅'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인식의 전환과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

전순희/기자

타이거 우즈가 '참석하지만 뛰지 않는' 이번주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오는 18일(현지시간)부터 나흘 동안 미국 캘리포니아주 피서픽 팰리세이즈의 리비에라 컨트리클럽에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총상금 930만달러)이 개최된다.

이 대회를 주관하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는 호스트로 참석하지만 선수로 직접 뛰지는 않을 것이다.

작년 12월 PNC 챔피언십 때 허리 부위에 불편을 느꼈던 우즈는 지난 달 허리 통증을 없애기 위해 미세 추간판절제술을 받았고, 지금은 투어 복귀를 위해 재활과 회복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회는 작년부터 '인비테이셔널'로 격상되었고, 우즈는 1년 전에 호스트와 선수로 1인 2역을 해낸 바 있다.

우즈가 2020~2021시즌 들어 출전한 대회는 단 3개다. 9월 US오픈에서 컷 탈락했고, 10월 조조 챔피언십에서 공동 72위에 그쳤고, 2연패를 기대한 11월 마스터스 토너먼트에서 공동 38위를 기록했다.

한편, 유럽 일정 이후 PGA 투어에 복귀하는 세계랭킹 1위 더스틴 존슨(미국)과 전 세계 1위 로리 맥길로이(북아일랜드), 그리고 디펜딩 챔피언



으로 나서는 애덤 스콧(호주)이 이번 주 리비에라CC 코스에서 스포트라이트를 예약했다.

1년 전, 스콧은 당시 세계 1위였던 맥길로이와 최종라운드 공동 선두로 나서며 챔피언조에서 우승을 다투었다.

마지막 날 1타를 줄인 스콧이 최종 함께 11언더파 273타를 적어내 정상

을 차지했다. 2타를 잃은 맥길로이는 공동 5위(8언더파)로 마쳤고, 더스틴 존슨은 공동 10위(7언더파)에 올랐다.

정동희/기자

'불화설'에 의연했던 김연경, '월클' 존재감으로 흥국생명 위기 극복할까



쫓기는 흥국생명은 선두를 지킬 수 있을까. 김연경의 어깨가 무거워 보인다.

흥국생명은 16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IBK기업은행과 2020~2021시즌 V리그 여자부 5라운드 맞대결을 벌인다. 흥국생명 처지에서는 매우 중요한 경기다.

흥국생명은 15일 기준 23경기에서 최근 '쌍둥이 스타' 이재영과 이다영이 과거 학교 폭력 문제가 들춰지면서 구단의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흥국생명은 핵심 공격수

와 세트 없이 남은 시즌(잔여 7경기)을 치러야 한다는 뜻이다.

이재영과 이다영은 팀 경기에도 나서지 못하고 국가대표 무기한 박탈 중징계까지 받았다. 대한민배구협회는 건장을 수 없는 상황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흥국생명은 15일 기준 23경기에서 17승 6패, 승점 50점으로 여자부 선두를 달리고 있다. 시즌 앞두고 김연경 복귀, 이재영과 이다영, 외국인 선수 루시아의 활약으로 강력한 경기

력을 보여줬다. 하지만 다 무너졌다. 이들 중 김연경만 남았다.

이재영과 이다영은 '학폭' 논란으로 전력에서 제외됐고, 루시아는 부상을 입어 떠났다. 대체 외국인 선수로 흥국생명은 브루나를 데려왔지만 만족스럽지 못했다. 오자마자 코로나 19에 걸리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다.

김연경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흥국생명은 최근 3연패 중이다. 특히 최근 2경기 모두 0-3 완패를 당했다. 이 사이에 2위 GS칼텍스가 승점을 쌓고 있다. GS칼텍스는 지난 14일 장충 홈경기에서 KGC인삼공사를 세트스코어 3-0으로 완파하고 승점 3점을 챙겼다. 흥국생명을 승점 5점 차이로 바짝 쫓고 있다.

흥국생명은 분위기를 추스르는 게 급선무다. 지난달 31일 현대건설전에서 2-3으로 패했고, 지난 5일에는 선두 경쟁을 벌이는 GS칼텍스에 0-3으로 완패했다. 그 다음 11일 한국도로공사전에서도 0-3으로 고개를 숙였다. 속절없이 무너졌다.

김연경이 흔들리는 팀을 지켜야 한다. 앞서 팀내 '불화설'이 불거졌을 때 김연경은 의연함을 보여줬고, 코트 안에서 프로 의식을 발휘하며 팀 분위기를 수습했다. 이제 학폭 논란으로 핵심 주전 2명이 빠지게 됐다. 불화설 때보다 더 큰 위기다.

물론 김연경 혼자 팀을 살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팀 동료들을 다독이며 팀 분위기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 과연 위기에 빠진 팀을 김연경이 어떻게 이끌어갈지 주목된다.

최재은/기자

봄 기다리는 K리그, 유관중으로 개막 준비



K리그가 유관중 개막을 준비한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하향조정함에 따라 이달 말 개막하는 K리그도 유관중 경기를 할 수 있게 됐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2단계에서는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이 경기장 수용 인원의 10%까지 가능하다. 1.5단계에서는 30%까지 늘

어난다. K리그도 이 지침에 맞춰 개막전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프로축구연맹 이종권 홍보팀장은 "곧 대표자 회의를 통해 유관중 개막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정부 지침에 따라 준비하는 것이라 특별히 다른 점은 없다. 이미 지난해 해방기 때문에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지난주까지만 해도 수도권외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유지됐다.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이 허용되지 않는 수준이었다. 비

수도권 일부 지방의 경우 2단계로 한 단계 낮게 제한됐다. 비수도권만 유관중으로 하기엔 애매한 측면이 있어 K리그 유관중 개막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단계가 내려가면서 K리그는 한층 밝은 분위기에 개막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유관중 매뉴얼은 이미 준비돼 있다. 30%까지 입장이 가능한 비수도권의 경우 적절한 거리두기를 위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5%로 제한하고, 전 좌석을 사전 온라인 예약을 통해 채워야 한다. 관중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를 운영한다. 구단은 열화상카메라, 혹은 비접촉

체 온계를 비치해 발열 증상의 출입을 막는다. 육성 응원도 금지되고 관중석에서의 음식물 취식이 금지된다. 선수들의 동선은 철저히 분리하고 오프라인 행사를 금지해

서라도 모를 감염을 예방한다. 지역 간 이동을 막는 차원에서 원정응원은 금지한다.

지난해 K리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2개월 이상 개막이 연기됐고, 그마저도 무관중으로 진행했다. 시즌 중에는 국내 코로나19 발생 상황에 따라 유관중, 무관중을 오가며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올해에는 큰 이변이 없는 한 관중과 함께

호흡하며 막을 열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인원에 제한이 있지만 적정한 분위기를 탈피한다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이다. 한 지방구단 관계자는 "아직 열을 이상 시간이 남아 있고 지난 시즌 매뉴얼을 따르면 된다. 크게 부담은 없다. 오히려 관중과 함께 개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KT 허훈, 역대 최초 국내 선수 득점-어시스트 동반 1위 가능할까

부산 KT의 허훈이 KBL 최초의 기록을 세울 수 있을까.

KBL은 5라운드가 진행되던 지난 14일을 끝으로 잠시 휴식기를 가졌다. 어느덧 리그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만큼 개인 기록 경쟁도 치열하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내 선수 득점 1위, 2라운드까지만 해도 이대성의 자리였지만, 3라운드에는 송교창이 선두로 치고나갔다. 하지만 4라운드 끝난 뒤 허훈이 새롭게 1위로 올라섰고, 이후에는 이대성이 다시 탈환했다.

허훈은 이미 어시스트 1위를 사실상 정해놓은 상태이다. 허훈의 경기당 평균 어시스트는 7.5개로 2위 이대성과 1.6개 차이이다. 큰 이변이 없는 이상 순위는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허훈이 어시스트 1위를 유지하며 득점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오른다면, 이는 KBL 역사이다. 역대 KBL에서는 국내 선수 득점 1위와



어시스트 1위를 동시에 차지한 적이 없었다.

관건은 국가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선수 득점 1.2위인 송교창과 이대성은 국가대표 차출 대상이 아니다. 브레이크 이후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허훈은 국가대표 일정에 따라 출국 후 자가격리를 해야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훈의 컨디션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KBL은 개인 기록에 의한 시상을 제외했다. 이를 기념할 만한 무대가 없다. 하지만 기록은 영원한 만큼 허훈이 두 부문에서 모두 1위에

오른다면 역사의 한 페이지에 장식될 것이다.

한편, 국내 선수 득점과 리바운드에서 동시에 1위를 차지한 일은 많았다. 프로 원년인 1997시즌 전희철이 있었으며, 이후 서장훈이 98-99, 99-00, 01-02, 02-03, 04-05 등 총 5번에 걸쳐 득점과 리바운드에서 국내 선수 최상위에 올랐다.

마지막으로는 17-18시즌 오세근이 18.7점 9.0리바운드를 기록하며 두 부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최만식/기자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

에서 해양치유로 몸과 마음을 힐링하세요!



◆ 해양치유란?

청정한 해양 환경 속에서 해양기후, 해수, 해양생물 등 해양자원을 이용해 만성질환을 치료, 심신을 치유하는 활동

◆ 완도가 왜 해양치유산업의 최적지인가?

공기 비타민인 산소음이온이 도시보다 50배 많고 바다 정화 역할을 하는 맥반석과 해조류 숲, 깨끗한 바다와 갯벌로 이루어진 청정 지역임

◆ 해양치유산업, 완도에 어떤 도움이 될까?

국민 건강 증진, 일자리와 소득 창출
농·수·축산업 동반 성장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